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3



글 •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
그림 • 극동만화연구소

대법원 · 사법발전재단

책을 펴내며

다짜고짜 우리 집을 찾아온 이웃집 아저씨가 문을 열자마자 아이에게 주먹질을 합니다. 그리고 항의하는 아이의 부모님에게 도리어 자신이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요. 아이가 집안에서 쿵쿵거리며 뛰어놀아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하네요. 결국 큰 다툼이 벌어졌고 아이의 아버지와 이웃집 아저씨는 법원에서 이 다툼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법원에서는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법원에서 정한 사람을 통해 서로 대화를 하며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은 재판 외에도 다양하게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각자 개성이 다르고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에요. 다투는 사람들의 주장을 차근차근히 듣고 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법원이 없다면 힘센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다툼에서 이겨서 약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또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큰 싸움으로 이끌어 결국 다투는 사람들 모두 피해를 입게 되는 일도

있겠지요. 그래서 법원은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나라의 기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법원을 딱딱하고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법원은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은 후에는 법원이 좀 더 친밀하게 느껴질 거예요.
층간소음 문제 외에도 불법다운로드, 따돌림, 차별문제 등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 책 속에서 진지하지만 쉽고 재미있게 펼쳐집니다. 또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평등을 위해 힘썼던 사람들과 법과 재판을 통해 나라를 지켰던 훌륭한 판사님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1, 2권에서 만났던 우리의 친구 용감한 똘이와 지혜로운 나리,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요정 바로미가 여러분들을 더욱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안내할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그럼 법원과 재판의 이야기 속으로 떠나 볼까요?

2024년 10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등장인물 소개



바로미

정의를 수호하는 법의 요정.
똘이와 나리에게 법과 재판에 대해 가르쳐주고
초능력을 사용하여 특별한 경험을 겪게 해준다.



신나리

똑똑하고 어여쁜 똘이의 여자친구.
침착하고 이성적이지만 똘이와 둘이 있으면
닭살커플이 된다.



한똘

덜렁대긴 하지만 정의롭고 용감한 소년.
장래에 훌륭한 판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나성깔

똘이네 이웃아저씨
똘이가 내는 층간소음에 화가 나서 폭력을 쓰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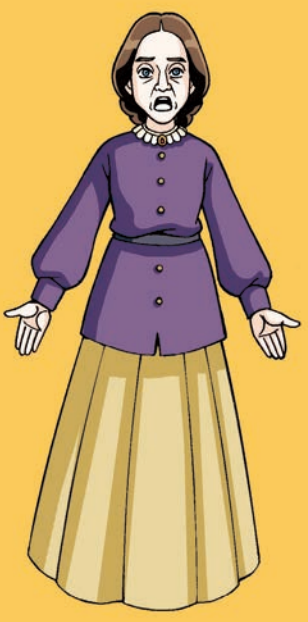
로자 파크스

백인들의 불합리한 차별에 대항하였고
이를 계기로 미국내 흑인들의 인권운동이
시작되었다.



한장난

똘이와 같은반 친구.
똘이가 흘린 스마트폰을
우연히 줍는다.



수잔 앤서니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
평생을 바친 여성인권운동가



제1화
스마트폰 분실사건, 어린이 법정으로 가다 ····· 8

제2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 지식재산권 ····· 72

제3화
층간소음, 법원 조정으로 해결하다 ····· 114

제4화
재판으로 차별없는 세상을! ····· 156

제 1화

스마트폰 분실 사건, 어린이 법정으로 가다




나리야!! 다시 같은 반이 돼서 다행이야.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이 달라질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호호호. 나도 기뻐, 똘아.
저러다 입에서 불 뿜겠네.
이것이 다 우리가 운명의 짝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어?
크하하하!!
♬
저 징그러운 바퀴벌레 커플을 1년이나 더 봐야 하다니… 에휴~
오! 마이프렌드들아!! 아는 척 안 해준다고 삐쳤어?
나이스 투 미쳐~♡
우에엑! 저리가!!
나이스 미츄 투. 아이 호프 투 비어 굿프렌드. 오브 유어스~
엥?


마이 네임 이즈 채이.
저.. 거시기... 암쏘 쏘리~
진정해, 똘아.
아직 영어가 2% 모자라 거든...
애 이름은 '채이'인데 만나서 반갑고 너랑 친구가 되고 싶대.
그.. 그래? 좋지~
응. 네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 꿈이 판사가 되는 것이라며?
똘이는 못말려~
내 장래희망도 공정한 판사가 되는 것이야.
흑흑
오~ 반갑다.
또 한 명의 판사지망생 이라니 바로미가 알면 기뻐하겠는걸?


바로미?
바로미가
누군데?
그. 그런
친구가 있어.
우린 갈 수 없는
세상에서 잘 살고
있겠지.
설마 죽은
친구인건가?
바로미가
보고 싶지?
응.
왁자지껄
조용!
조용해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1년이 시작되었어요.
한 학년 성장한 만큼
더욱 성숙하고 민주적인
어린이가 되기 위해 우리 학급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거예요.


(어린이 법정)
톡
톡
어린이 법정?
여러분들이 학급 규칙을 어기거나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직접 법정을 열어 재판을 하는 겁니다.
직접 판사나 검사가 되어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재밌겠는걸
복잡할 것 같아...


타오르는 열망에 행동계획까지 갖추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토머스 J 빌로드–
필승
판사의 꿈을 이루려면 첫째 조건이
다 다 다 다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것! 꿈을 위해 노력하는 거야.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군.
우리 똘이가 달라졌어요.
삭 삭사삭
여보, 그러고 보니 이번 달에 똘이 생일이 있잖아.


똘이가 저렇게 기특하게 굴고 하니 예전부터
사달라고 조르던 그것을 선물로 주는게 좋겠어.
똘아 열심히 하는 구나.
어머. 좋은 생각이에요.
ㄴㅣㄴㅣ ㅇㅣㅇ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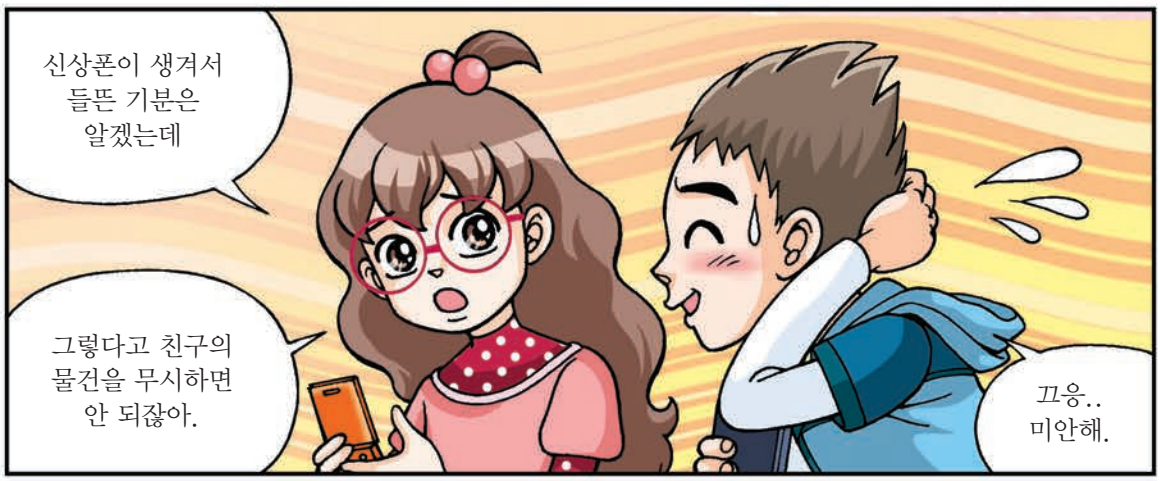

바로미...
보고 싶다.


짜
잔


와아! 똘아 그거 신상 스마트폰 이잖아.
광고에서 봤어.


후후후. 친구들 예리하시군.
따끈따끈한 최신상품 로얄폰5라네.


음화하하하!!
곧 생일이라고
아빠가 사주셨지롱~
이야
부럽다.
치, 저 콧대 좀 봐.
카메라화질도 너무
선명해서 현미경
같다니깐!
…!
그리고 방수기능이 있어서
물속에서도 촬영이 된대.
쳇!
엄만 내 폰을
언제
바꿔주실까?
오옷! 장난이 너
촌스럽게시리 아직도
그런 핸드폰 쓰니?
박물관으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톡
저리 비켜!!
왜 함부로 남의 폰을
보는거야?
헉
어?
똘아… 폴더폰이 뭐가 어쨌다고?
움찔
딸깍
엥?


신상폰이 생겨서 들뜬 기분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친구의 물건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
끄응.. 미안해.


장난아 미안하다.
내가 오바했어. 헤헷.
흥!


사과하는 사람에게 콧방귀를 껴?
쪼잔한 자식!
그저 그저


새로 생긴 방방놀이터에서 할 예정이니깐 많이들 놀러와.
아 참! 얘들아. 이번 주말에 내 생일파티하거든.
방방놀이터?!
와~ 재밌겠다.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선물 잊지 말고~♡
아~ 갑자기 가기 싫어졌다.
생각해보니 주말에 약속이 있었네.
농담이었어. 농담!
띠로리로링
앗! 수업 시작이다.
폰순아. 오빠 수업 받을 동안 가방 안에서 잘 자고 있어.
쪽
생일 축하해!! 똘아
바비슬레


짝
짝
짝
짝
짝
100
고마워 애들아!
맛난거 많이 차렸지만 비싼거니까 눈치껏 먹어.
치킨이다~
와우 피자!!


똘아. 불 끌게.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촛불 꺼야지.
응. 불 좀 꺼줘.
소원 비는 것도 잊지마.
소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 똘이의~
짝 짝
제 친구 바로미를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한 번 꼭
만나게 해 주세요.
후
반짝


파.. 파란빛!!
이건...
설마...
생일 축하해 똘아~
번
다시 만나게 되어 아주 반가워.
쩍
우와~
바, 바로미다!!
나리야, 뭐해? 어두워.
얼른 불 켜고 케이크 먹자.
아 참! 다른 친구들은 바로미가 안 보이지.


음. 맛있어.
야! 그쪽에도 있잖아.
우물
어라? 똘이와 나리가 안 보여.
걔들은 찰떡커플이잖아. 둘이 함께 있겠지.
바로미 보고 싶었어!!
방방
하하하 나도.
나리야, 넌 더 예뻐졌네.
어쩜~ 정의의 요정답게 보는 눈이 참 객관적이고 공정하구나.
정말 꿈 아니지, 바로미?
어떻게 또 오게 된거야?
똘이가 빈 소원 덕분이지.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순수한 소망이 하늘도 감동시킨 덕에 당분간 곁에 있을 수 있게 됐어.


이야, 최고의 생일선물이네, 똘아.
응. 스마트폰보다 더 기뻐.
스마트폰?
이것봐.
울 엄마, 아빠가 사주셨어.
……
이걸로 최신게임을 수시로 할 수 있게 됐어. 볼래? 볼래?
정말 스마트폰 보다 내가 온 것이 더 기쁜 것 맞나?
똘아!
파티 주인공이 빠지면 어떡해?
아. 미안해.
바로미, 나리야 가자.
방
방
방


앗싸라비야!!
에헤라디야!!
저녀석 날으네. 날아.
올레!!
똘이는 판사보다 운동선수가 더 어울릴 것 같아.
공정하고 진실한 마음가짐
이얏호!
붕
아냐, 똘이는 판사의 재능도 많이 갖추고 있어.
판사의 재능?
책임감과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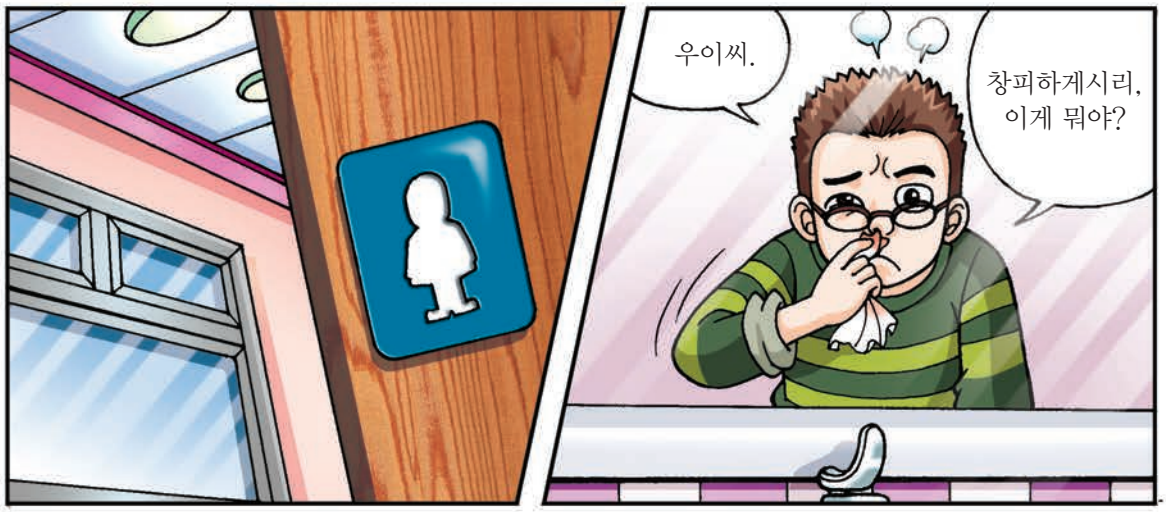

공부는 좀 그렇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재능을 똘이는 갖추고 있어.
나리가 생각이 많이 깊어졌는 걸.
똘이에 대해선 초강력 콩깍지가 씌여 있지만..
빠앗
웬 부싯돌 부딪치는 소리?
똘아!!
장난아!!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둘이 정신없이 뛰다가 박치기를 했어.
야, 장난이 코피난다.
장난아, 이걸 써.
고.. 고마워.
괜찮니, 장난아?
피까지 봤는데 괜찮아 보여?
걱정해 주는데 왜 화를 내?
나 혼자 부딪친 것도 아니고 쌍방과실로 부딪친 거잖아.
쌍... 뭐?
한 똘, 이 자식! 너 나한테 중국말로 욕했지?
장난아 진정해.
욕한거 아니거든! 이 바보, 찐따, 개구락지야!


쌍방과실!!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는게 아니라
둘 다 잘못과 책임이
있는 거라고!!
?
이번엔 진짜로 욕했잖아!
용서 못 해!!


그래! 용서하지마
이 답답아!
용서하면 내가 너
용서 안 해!!
똘아, 싸우면 안돼.


쿠오오오오오!!!
끄아. 똘아,
이성을
되찾아.
이게 뭐야?
친구 생일날!
야, 참아!


우이씨.
창피하게시리,
이게 뭐야?


그 자식 갔냐?
다 갔어. 우리도 어서 가자.
쫌만 기다려. 나 가방 가지고 올게.
나쁜 자식!
휙
한번만 더 걸려봐.
그땐 가만 안 둘테니...
응?


와아! 이거 신상 스마트폰이잖아.
누가 떨어뜨렸나 보네.
멋지다.
장난아, 뭐해? 어서 가자.
어... 어?!!
그래 가자.
똘아, 다친 덴 없니?
없어, 괜찮아.
그런데 이상해.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든단 말이야...
생일파티의 마무리가 급작스러워서 그런거 아냐?


크윽.. 바로미가 오자마자 못난 모습을 보였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른스럽고 성실하게 행동했었는데.
장난이 자식 열받아!!
자화자찬을 스스럼없이 하는 걸 보니 예전과 비슷해 보이는걸.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뉴스
O. T. NEW


중독사용자군에 포함된 학생들은
평일 평균 7~8시간, 주말 평균 8~9시간을
스마트폰에 빠져있었습니다.
쯧쯧..
심각하군.


우리 똘이는 잘 절제하고
있어서 다행이죠.


처음 며칠은 스마트폰만 끼고 살더니
오늘은 마치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 같다니깐요. 호호호.
응?


폰!?
내 뒷주머니...?
?
깜짝
법전
내 폰순아!!


?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
얼른 돌아와!!
…?
얘들아, 누구 똘이의 스마트폰 본 사람 있니?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나봐, 언제 잃어버린거야?
어제 가방에 넣어 둔 줄 착각해서 늦게 눈치챘대.


태권도장, 방방놀이터, 학교, 내가 다녔던 곳 구석구석 뒤져봤는데 안 나와!!


부모님께는 말씀드렸어?
아니… 난 하루라도 오래 살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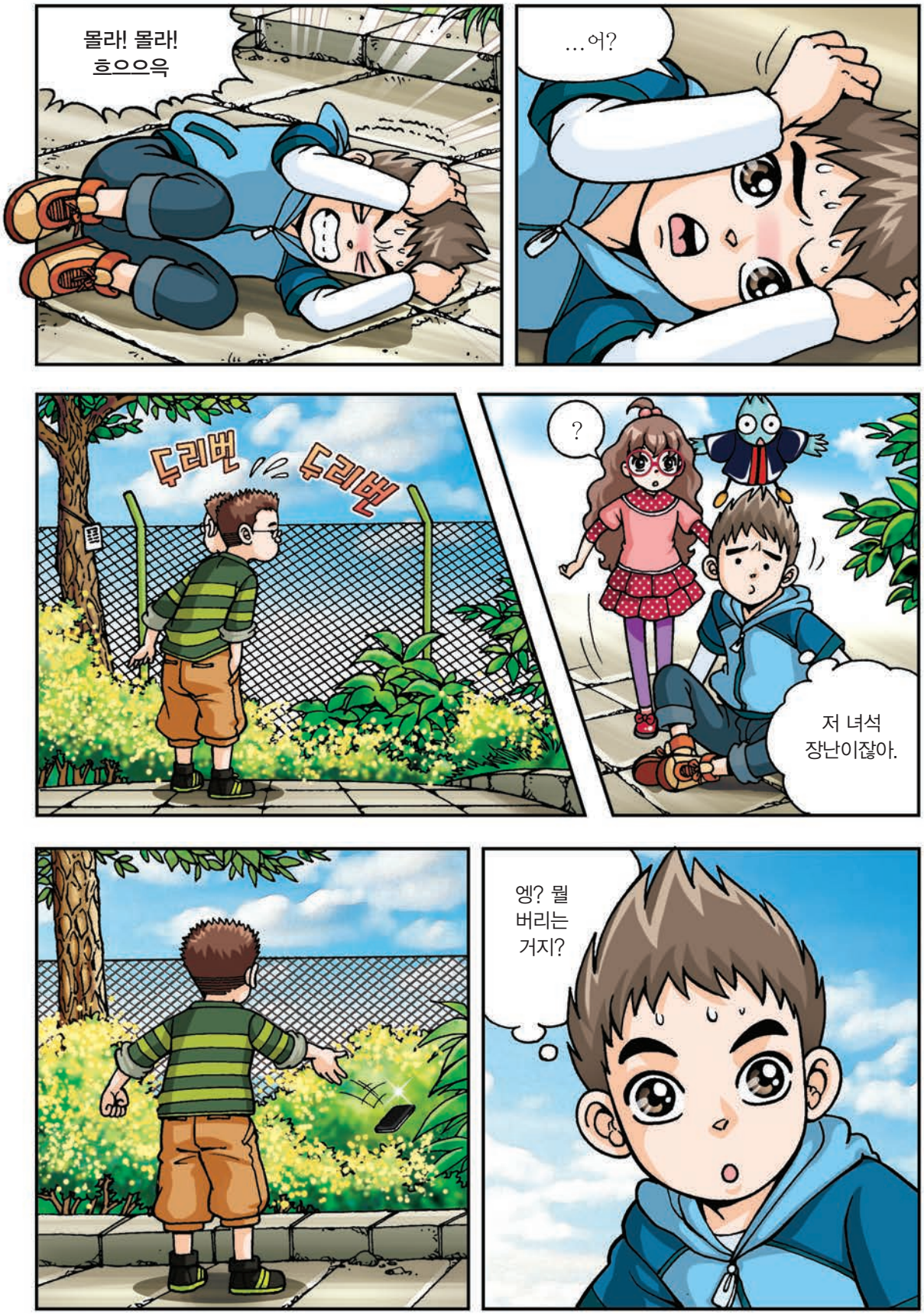

우선 대리점에 가서 분실신고 부터 하고
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요청해.


혹시 모르니깐, 오늘까지 사용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도 확인해 보고.
알았어, 고마워! 채이야.
당장 다녀올게!!
똘아! 수업은 듣고 가야지.
쳇! 스마트폰이 있어도 배터리 충전기가 없어서 게임을 못하다니…
장난아, 뭐해? 집에 가자.
진실아. 우리 게임방에 가서 게임이나 한판 할래?
돈 없어. 스마트폰 게임이나 해.
엄마가 새로 사주셨다며.
에… 그게……


근데 소문 못 들었어?
누가 똘이폰을 훔쳐갔대.
뭐?
그것도 생일날
훔쳐갔다고 하더라.
고약하게시리.
서.. 설마
이 폰이 똘이녀석
것이었어?
하지만, 난
훔친게 아니라
주운건데...
크~ 누군지 걸리면
응급실 예약해
둬야할걸.
응급실?
너 모르는구나, 지금은
많이 얌전해졌지만 옛날
똘이 별명이 뭔지 알아?
대법초등학교
전설의 주먹!
뭐? 그 전설의
주먹이라는 애가
똘이 걔였어?!
너 완전 몰랐구나..
이런..! 왜 하필 그 녀석이야.....


SERVICE CENTER
NEW
어디보자..
폰은 지금
꺼져있네.
별별 아파트요?
마지막으로
위치가 수신된
지역이
별별
아파트구나.
난 그 동네 근처에도
안 갔는데 내 폰이
왜 거기 있는거지?
조금 더 자세한 위치를
알 수 없을까요?
미안하다. 이것까지가
최선이야.
그럼 오늘까지 쓴 폰요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잠깐만... 흠.
좀 많이 썼구나.
20만 원이다.
토
톡
이.. 이십만 원!!!
벌떡


으악!!
화딱지나!!!
도대체 누가
훔쳐간거야?
그렇게 큰돈은
평생 만져
보지도 못했는데
억울해!
폰도 완전
최신형이라 엄청
비싼건데!!
척
데굴데굴
그러다 다쳐, 똘아.
좀 다치면
어때…
어차피 엄마아빠가
알면 끝장날텐데…
척
으이구, 그만
일어나.
그런다고 없어진
폰이 다시
나타나니?


몰라! 몰라!
흐으으윽
…어?
두리번
두리번
?
저 녀석
장난이잖아.
엥? 뭘
버리는
거지?


타닥
야! 너 뭘 화단에 버린 거야?
깡
으악!
쓰레기를 화단에 버리면 안 되지~이!
하.. 한 뚤!
사삭
앗!
이.. 이건 내 스마트폰?!
이것 봐라! 한장난, 도둑이 너였냐?!!
도... 도둑이라니?


쿠오오오!! 너 잘 걸렸다.
안돼! 참아!!
장난아 어서 피해!
우이씨. 훔치긴 누가 훔쳤다고 그래?
어떤 바보가 잃어버린 것을 난 주웠을 뿐이라고!
다다다
뭬야? 주운 물건은 주인을 찾아줘야지.
그걸 함부로 쓰고 멋대로 버려?
똘아!
거기서!!
돌려주고 싶었지만 네가 날 도둑으로 오해할까봐 못 돌려줬어.
넌, 나 싫어하잖아!
내 폰을 20만 원어치나 썼으면서 그걸 변명이라고 해? 넌 오늘 죽었다.


뭐? 20만 원!!
억! 뭐, 뭐야?
헉!
왜들 이래?
서.. 선생님!
선생님! 똘이가 절 때리려고 해요.
똘이가?
아.. 아니에요. 선생님.
그.. 그게 아니고요.


교무실
장난이가 제 폰을 몰래 쓰고 버리려 했단 말이에요.
고의는 아니었어요. 선생님.
20만 원치나 써놓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난 그렇게 많이 안썼거든?!
둘다 그만!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니 꽤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같구나.
이렇게 하자.
?


어린이 법정을 열어 친구들과 함께
생각하고 해결하는게 좋겠다.


그러니 어린이 법정이 열리기 전에 너희는 절대 다투어선 안된다.
넵!
…네..


어린이 법정을 열겠다니..
굉장히 파격적인 선생님이신걸!


후후.. 이번 기회에 그간 공부해왔던 법지식을 활용해 재판을 해 주겠어!!
똘아. 넌 피해자 잖아.
판사가 될 수 없어.
뭐? 무슨 소리야?
내 꿈이 판사인건 반 친구들도 다 알고 너도 잘 알잖아.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사는
재판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어.
이것을 바로 '제척'이라고 해.
이럴수가! 그럼 나리도 피해자인 나와 친하니까 제척대상이겠네.
그럼, 누가 판사가 되지?
누가 되든 나랑 사전에 미팅을 좀 해야 하는데...
똘아, 엄밀히 그것도 불법이야.
불법?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똘이의 반 담임선생님은 어린이 법정을 위해 특별 수업을 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마쳤고 재판은 배심원제로 하기로 했다.

Tip

배심원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평결을 내리게하는 제도.

배심원은 사건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의 판단만을 내리고, 소송을 지휘하거나 법률을 해석하는 등의 일은 판사가 한다.


웅성
웅성
진짜로 우리가 재판을 하는구나.
오~ 재밌겠당~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치밀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지.
재판을 받을 정도로 내가 잘못한 걸까?
....
피고인
검사에 의해 재판을 요구받아 죄가 있는지를 가리게 되는 사람.
시작 안해?
판사인 채이가 입장해야지.
야 조용히 해.
...
배심원


방청석은 조용히 해 주세요.
그리고 재판부가 입장하실 때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경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증인
변호인
경위
경위
재판정을 정돈시키고 재판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
어린이 법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앉았다.
판 사
증인
정렬이 녀석 똥개훈련 시키남? 왜 판사가 들어왔다고 앉아라 마라야.
억지로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재판이 시작되는 데에 대한 예의야.
알잖아. 잡담 등으로 어수선한 재판정의 질서를 바로잡는 거란걸.
판사가 엄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도 될테고.
판 사


쳇..
으이구~ 아직도 포기 못했네.
그래도 내가 판사였으면 더 멋졌을텐데...
끙적 끙적
1. 개정 선언
지금부터 대법초등학교 6학년 2반 어린이 법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심원들은 선서해주세요.
판사
2. 배심원 선서
본 배심원들은 재판장이 설명하는 학급규칙과 증거에 의해 진실하게 평결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배심원
평결
재판에 대해 배심원들이 의논하여 결정한 내용.
배심원들은 다음의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십시오.
첫째, 재판에 관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기 전에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모든 결정은 증거에 따라 내리고
개인적인 판단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채이, 진짜 잘한다.
장래 꿈이 판사라잖아.


피고인 한장난, 피고인은 한장난이 맞습니까?
네.
판사
증인
변호인
피고인


어쭈! 기합이 제법 들었는데
잘못한 걸 알긴 아나보네.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지요?
20××년 2월 12일입니다.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입니까?
대법초등학교 6학년 2반입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끙...
피고인
검사는 피고인을 왜 기소했나요?
검사
검사
기소
검사가 어떤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행위.


3. 검사 기소요지 낭독
대법초등학교 6학년 2반에 재학 중인 한장난은 3월 25일 방방놀이터에서 똘이의 스마트폰, 로얄폰5를 주웠으며 똘이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려
찾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친구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각종 게임 아이템 및 노래, 동영상 등을 구입하여 스마트폰 요금이 2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오~ 정바로 잘한다.


그 후에도 한장난은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고 3월 28일에
슬쩍 버리려고 하여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정바로 검사
잘하는데~
파이팅!!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을
학급규칙 제4조「친구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친구에게 사과편지를 쓰고
20시간 이내의
학교 봉사활동을 한다」에 의거하여
피고인 한장난을 기소합니다.
.....


4. 피고인의 모두 진술
검사의 진술에 대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요?
제가 똘이의
스마트폰을 주운 것은
사실입니다.
판 사


하지만 그
스마트폰이 똘이의
것인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똘이는
모두가 자신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전 몰랐어요.


게다가 전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쉿!
제! 저 뻔뻔스러운 녀석, 말하는 것 좀 봐.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은 똘이가 그만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
5. 증거 조사
검사측, 증거나 증인을 신청하겠습니까?
같은 반 친구인 김진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거짓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선서하십시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증언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증인


법정
평소 한장난과 증인은 친한 친구인가요?
판사
네!
증인
피고인이 똘이의 스마트폰을 습득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
판 사
아니요. 저는 방방놀이터에 가지 않았거든요.
곰적 곰적
그럼 피고인이 새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습니까?
검 사
네.
새로 샀다면서 제게 자랑을 했어요. 설마 그것이 똘이것인지는 몰랐고요.
나중에 똘이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본 것은 인정하시는군요.


피고인이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하거나 뭔가 숨기는 것 같지는 않던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에헷~ 잘 모르겠습니다.
으이구!! 만고에 도움이 안되는 증인이구만!
진실이가 솔직히 말하고 있잖아.
하지만 저랑 둘이 있을 때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있을 때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증인
증인이 똘이가 스마트폰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피고인도 똘이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똘이가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사
증인


하긴..
나도 들었어.
똘이 목소리가
좀 커!
억울해! 난 정말 그 폰이
똘이의 것인줄 몰랐다고!!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휴~ 힘들다.
잘했어! 정 검사.
변호인은 반대신문 하세요.
네.
경위
변호인
피고인
평소 학교에서 증인이
본 피고인은 어떤
친구인가요?
좀 개구쟁이긴
해도 친구들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변호인
피고인
피고인이 최근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피고인이 쉬는 시간에 자주 화장실에 갑니까?
화장실요? 네, 자주 가는 편이에요.
뭐야~ 쑥스럽게 …
그럼 돌이가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 했을때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었다면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그럴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때 장난이가 교실에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상입니다.
당장 학교에 건의해야겠어. 급식에 고등어를 많이 넣어달라고.
왜?
고등어가 기억력을 좋게 하는 데에 탁월하대!!
6. 피고인 신문
피고인에 대한 권리고지
신문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지금부터 피고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문에 앞서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인,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만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한장난에 대해 신문하여 주십시오.
네.
검사
변호인
검사의 피고인 신문
피고인은 3월 25일 방방놀이터에서 스마트폰을 주워서
유료게임과 아이템을 다운로드 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하지만 그것이 똘이의 것인지 몰랐고, 스마트폰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피고인
그러나 물건을 주웠다고 해서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몰랐습니까?
윽..
처음에는 경찰서에 갖다 주려고 했는데 신상폰이라 호기심에 조금 써 봤을 뿐입니다.
거짓말!
그것이 똘이의 스마트폰인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럼 왜 즉시 돌려주지 않았나요?
검사도 제법이다
그때 줬으면 문제가 없지!
스마트폰을 조금 썼다 해도 주인을 알았을 때
즉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혹시나.. 절 도둑이라고 할 것 같아서요. 그냥 운동장에
놔두면 제가 쓴 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
!
즉시 돌려주지 않은 것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 녀석 말을 어떻게 믿겠어...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인 반대신문
변호인, 반대신문 하세요.
사


앉은 채로 답변해 주세요.
피고인은 똘이의 물건을 일부러 훔친 것입니까?
경위
아니요!
그냥 방방놀이터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는 똘이의 것인 줄 몰랐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의 것이니 주인을 찾아 돌려주려고 했나요?
네... 잠깐만 가지고 논 후에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주인을 찾아 돌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썼을 때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되어 꺼져버려서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 말을 믿어...?
그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셈이군요.
네...
오잉! 그런데 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하루도 안 되어 20만 원의 요금을 쓴 것입니까?
아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도리
도리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
경위
피고인
변호인
7. 최종의견 진술
검사 최종의견 진술
검사는 최종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대법초등학교 6학년 2반에 재학중인 한장난은 방방놀이터에서
로얄5 스마트폰을 주웠으며 그 스마트폰을 주인의 허락없이 사용하였습니다.
본인이 주운 스마트폰이 똘이의 것임을 안 후에도
한장난은 직접 돌려주지 않고
화단에 슬쩍 놓아두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에게 학급규칙 제4조에 따라 똘이에게 사과편지를 쓰고
학교봉사활동 20시간의 벌을 내려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
판 사
변호인 최종의견 진술
변호인 최종의견 진술하세요.
…!?
네.
판사
증인
변호인
피고인은 처음에는 주운 스마트폰이 똘이의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요금이 20만 원 청구되었지만 피고인이 모두 사용한 요금이라고 할 정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20만 원은 말도 안돼!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주워 하루도 채 사용하지 못하였고 후에 스마트폰 주인이 똘이인 것을 알았지만 직접 돌려주지 않은 것은
변호를 맡은 찬호도 꽤 공부했는데..
검 사


도둑으로 몰릴까봐 한 행동이었습니다.
칫! 그럼 버리지 말고 날 줬어야지.
스마트폰을 직접 돌려주지 않고 주인의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벌을 받을 만큼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쎄?
배심원
피고인이 사용한 만큼의 스마트폰 요금을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최종의견 진술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저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나쁜 행동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한 행동인데 똘이를 그렇게 힘들게 한 것은 깊이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친구들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지도 않을 것이며
줍게 되면 경찰서나 선생님께 즉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엥? 눈물까지?! 저거 쇼 아냐? 바로미.
글쎄? 한번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똘아.
?
피고인 끝났으면 앉아주세요.
배심원들이 의견을 모을 동안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판사
휴정
법원에서 재판을 잠시 쉬는 일.
아이구, 난 화장실부터 가야겠어.
배심원
복도에서 하자.
잠깐! 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엿들어 봐야지!!
안돼!
6-3
소곤
소곤


장난이의 잘못이 명백하니
검사의 의견대로 하는게 어떨까?


하지만 똘이의 실수도 조금은 있어.
자신의 물건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잖아.


맞아.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니까 당장 돌려주지도 못하고
새로 나온 폰이니 호기심에 좀 사용할 수도 있잖아.


그래도 즉시 경찰서에 갔어야지.
남의 물건인데…


똘이가 정신적, 재산적 피해는 봤지만, 사용료 20만 원을 모두 장난이가 썼다는 증거는 없어.
그리고 도둑으로 오해 받을까봐 폰을 돌려주지 않은 점도 인정할만해… 그런점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자.


무엇보다 물건을 주인 허락 없이 사용한 점,
또 친구의 물건인 줄 알고도 돌려주지 않은 점은 중요하다고 생각해.


8. 배심원 의견 진술
배심원단의 의견이
모아졌으니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판사
먼저, 배심원단의 평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해야지.
배심원
평결
의논하고 평가하여 결정함.
피고인 한장난은 친구의 물건을 습득하였으며 주인의 허락 없이 사용한 점.
친구의 물건인 줄 알고 나서 돌려주지 않은점 등으로 인해
배심원
친구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유죄이며
유죄?!
변호인
피고인
학급 규칙에 따라 친구에게 사과편지를 쓰고
한 달 동안 15시간의 학교봉사활동을 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검사


9. 판결 선고
그럼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한장난은 친구의 물건을 습득하여 주인의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지만
판 사


직접 친구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알아..
결국 돌려주지 않은게 문제였어.


이로인해 피해자 한똘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겼는데 찜찜한 이 느낌은 뭐지?


어린이 법정
이에 피고인 한장난은 학급 규칙 제4조에 의거 친구에게 사과편지를 쓰고
한 달 동안 15시간 학교봉사활동판결을 내립니다.
판사
배심원
검사
검사
증인
피고인
이야~ 나리야, 돌아 재판 감동이다.
바로미..
오~


너희들, 정말 정말 잘했다.
짝
짝
짝
선생님.
처음인데도 각자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소화해 냈어.
짝
짝
짝
난 정말 아이들을 잘 가르치나봐. 호호호~♬
언젠가는 너희들도 어른이 되고, 법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가 올테지.
오늘은 그 날을 위한 준비 단계로 생각해라.
큭, 기분이 좋으신가봐.
우리가 좀 잘하긴 했지. 히히~
이번 재판을 계기로 너희들의 준법정신이 더욱 높아지고
?
항상 나보다 먼저 친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배려심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단다. 모두 그럴 수 있죠?
네! 선생님.


재판도 해보니깐 재밌네.
그럴듯했지.
잘가.
다음엔 내가 판사를 해봐야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채이 등에 지퍼가 달려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지퍼를 열어보면 진짜 판사님이 안에 들어있을 것 같아.
오늘 진짜 잘하더라고.
흥! 너 강력한 라이벌을 만나 좋겠다. 채이는 예쁘고 공부도 잘하니까!
뭐야! 비꼬는거야. 난 진심이라고.
누가 아니래!!
엥? 나.. 나리야?
내 말은 앞으로 채이에게
질투를 …
지지 않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는 거라고.


그런데 20만 원은 어떻게 된거야? 네가 쓴거야?
크윽! 20만 원. 너 정말 송곳 같구나.
휘청
에휴~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그 돈은 아마 장난이와 내가 함께 쓴 것 같아.
스마트폰을 처음 써보는 거라...
잘 모르고 몇 개 다운 받았거든.
요금 영수증이 날아오기 전에 부모님께 이실직고하도록 해.
그 방법이 생존율이 제일 높아!
그.. 그럴까?
그럼 다운로드 내역을 자세히 확인한 후 장난이와 의논해서 요금은 나누어서 내도록 해.


크크.. 똘이 너 장난이에게 화가 나서
내내 흥분상태더니 이제는 괜찮아진 것 같구나.
이 판국에 너 같으면 괜찮겠냐?
하지만 재판을 통해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번 사건을 볼 수 있게 됐어.
나도 스마트폰을 줍게 된다면 장난이처럼 했을지도 몰라.
삭
이런 경우에 올바른 행동은 스마트폰을 주운 즉시 방방놀이터 주인에게 건네주었어야 해.
만약 지하철이나 놀이공원에서 물건을 주웠다면 그곳을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되는 것이고.
맞아! 장난이가 방방놀이터 주인에게 폰을 맡겼더라면 너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테니까.


저... 또.. 똘아.
엥? 너.. 넌!
슈퍼
미.. 미안해 똘아.
네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서.... 이렇게까지 큰 일이 될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
오케바리!! 사과접수 완료!!! 나도 더 이상 불만을 남기지 않을게.
저..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알고 보니 이용요금 20만 원 중에 내가 쓴 것도 있더라고.
그.. 그랬구나. 그래도 고맙다.
휙
앞으로는 내 것에 철저히 내 이름을 써 놔야지.
똘이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제일 소중한 내 것부터.
착
뭐야?!
힘뚤
엥!
헉!!!
똘이 너..!!
헤헤~
우악! 닭살!! 역시 너랑은 친하기 힘들겠다.
다다다다
벗어나고 싶어.



제1화 심화학습

어린이 법정, 어떤 순서로 할까요?

1 어린이 법정에 대해 자부심 갖기

어린이 법정은 스스로 만든 규칙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잘잘못을 가리되 실제 법정과 마찬가지로 재판의 형식과 방법, 절차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치법정이라고도 합니다. 학생들은 어린이 법정을 통해 법과 규칙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법정을 여는 긍지와 자부심을 먼저 가져야겠죠.

2 실제 법정의 모습과 용어 알기

어린이 법정을 열기 위해서는 실제 법정의 모습을 견학해보고 또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로 법원에 견학할 때는 미리 예약을 하고 가면 법원에서 자세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체 견학을 가는 경우 법원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법복을 입고 모의재판을 해 볼 수 있습니다.

3 규칙 만들기

어린이 법정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있어 학급이나 학교에서 스스로 제정한 규칙을 적용하여 지키도록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법정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칙의 내용에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벌점을 주고 또 그 벌점이 몇 점 되었을 때 어린이 법정을 열 것인지도 함께 담아야 합니다.

4 역할 이해하기

재판에서 필요한 사람들인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 배심원 등의 역할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교실을 어린이 법정으로 꾸미기



6 실제로 어린이 법정 열어보기

어린이 법정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사건을 다룹니다. 친구와 개인적 갈등이 생겼을 때와 공동생활을 위한 학급규칙을 어겼을 때가 그것들인데, 각각 사건을 다루는 사람들과 재판의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개인적 갈등이 생겼을 때	학급규칙을 어겼을 때
개정 선언	개정 선언
출석 확인	출석 확인
원고측 대리인 변론	배심원 선서
피고측 대리인 변론	검사 기소 요지 낭독
증인신문	피고인 모두 진술
원고측 최종변론	증거조사
피고측 최종변론	피고인 신문
판결 선고	최종의견진술
폐정 선언	배심원 평결 및 평결서 제출
	판결선고
	폐정 선언

7 배심원의 평결 및 판사의 판결 선고

배심원단이 전원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다시 토의하여 가능한 한 만장일치의 결정을 하도록 다시 노력하고 그래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수결로 합니다. 결정을 할 때는 감정적이거나 장난으로 하지 말고 신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한 재판에서 피고인이었던 친구는 다음 재판에서 판사나 배심원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제 2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 지식재산권








아니, 춤이 아니라 노래가 멋지다고.
엥?
이 노래 부른 'T블럭' 오빠들 팬이거든.
목소리 너무 감미롭잖아. ♡♡
나리야. 너도 T블럭 오빠들 팬이지?
응.
그 오빠들 신곡 나왔는데 뮤직비디오 볼래?
어머, 정말?
알라뷰~
알라뷰~
세상이 두 쪽나고
세 쪽나도 내 인생 쪽박차도
알라뷰~


어때?
나리야.
널 위한
춤이었어.
꺄악~ T블럭 오빠!
오빠 완전
멋져요!
나도 오빠
알라뷰해요~♡
기운 내.
나.. 나리야.
어떡해. 오빠들 신곡 나올 줄 모르고
이번 주 용돈 다 썼는데...
어머, 나리 넌
노래를 돈 주고
다운받니?
응, 난 돈 주고
다운받아.
넌 안 그래?


당연히 공짜로 다운받지.
다른 애들도 모두 공짜로 다운받아.
아니, 어떻게?
간단해. 어떤 사이트에 가입해서 다운 받으면 돼.
한꺼번에 수백곡씩 다운 받을 수 있는데 다 공짜야.
이럴수가... 그럼 이제껏 나만 돈 내고
음악을 듣고 있었던거야?
못 믿겠으면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봐.
꼴깍.
얘들아, 너희들도 음악을 공짜로 다운받아 듣니?
당연한 거 아냐?
난 만화책도 공짜로 다운받아 보지롱~
뭐야? 나리야, 여태 모르고 있었어?


최신영화, 애니메이션, 소설책 다 공짜로 받을 수 있잖아.
세상에... 정말이었구나.
모르는게 죄라더니... 그간 노래 산다고
있는 용돈, 없는 용돈 쪼개 써가며 근근히 살았는데 내가 바보였구나.
털썩
뭘 그래, 나리야. 갖고 싶은게 있으면 말만 해.
난 신곡은 몽땅 갖고 있어. 바로 메일로 보내줄게.
애... 얘들아 잠깐!
또아! 나도 좀 보내줘. 내 메일 주소 알지?
혹시 씨스터 신곡도 있니?
난 보이즈데이 신곡!!


차라리 내가 우리 반 홈페이지 자료방이랑 내 블로그에
몽땅 올려둘테니깐 듣고 싶은 것 알아서 다운받아가.
그리고 너희들도 재미있는 만화책이나 영화가 있으면
학급홈페이지 자료방에 올리는거야. 어때?
와~ 좋은 생각이야!
그럼 나도 내 텐피스 만화책 다운받은 것들 다 올려둘게.
난 판타지소설 많이 갖고 있어. 햇빛조각사 다 올려둘게.
신난다~ 오늘부터 밤을 신나게 불태워야지.
어버..버버.. 이럴수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다니 똘이는 정말 똘똘하다니깐.
차세대 리더감이야.
하하하 이쯤이야.
안돼!
대단해.
...!


당장 그만둬!!
헉!!
바로미야, 들키면 어쩌려구 그래? 놀랬잖아.
?
?
할 말 있으니깐 당장 뒤뜰로 나와!
바로미, 어디 아파?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똥 마려? 휴지 빌려줘?
너희 행동 때문에 하도 기가 차서 그래!!



Tip

저작권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소설, 시, 음악, 미술, 사진, 영상, 건축,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 많은 분야의 저작물이 포함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인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즉 헌법, 법률, 조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법원의 판결, 시사보도 등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너희들이 저작권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래.
영화나 음악, 책 등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사이트는 대부분이 불법이야.
어머, 하마터면 잘 모르고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구나.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앞으로 조심해.
똘이도 이제 알았으면 불법 다운로드한 음악들을 당장 지우도록 해.
그렇지만…
대단해.
차세대 리더.
바로 조금 전에 파일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돌아서서 곧장 취소하면 내 꼴이 우습게 되잖아.
기왕 다운받은 거 이번만 친구들과 함께 듣고
다음부터 안 그러면 안될까? 그다지 티도 안 나잖아.


뭐라고?
너 그거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 그냥 다음부터는 하지 말고.
이번 한 번만!
콰광
르르
똘아.. 네게 정말 실망했다.
바.. 바로미! 어디가?
내 생각에도 이번 일은
네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나리야...
다시 한 번 생각해봐.
다들 왜 이래?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잖아.


어쩜, T블럭 오빠들 노래 정말 좋다.
감미로운 멜로디 로멘틱한 가사, 완벽해!
그래, 이런 명곡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었겠어.
공짜로 듣겠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도둑심보였지.
합법적으로 내 돈 주고 산 노래들이니까
친구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학급홈페이지에 올려야지.
즐거운 우리반
자료모음방(117)
목록보기/펼쳐보기
아.


똘이랑 다른 친구들이 벌써 스캔본이랑 음악파일을 많이 올려뒀네.
이대로 괜찮을까?
어머머머!
이게 뭐야?
출석 요구서?
귀하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 범죄수사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캑!!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세요.
내가 저작권법을 어겼다니?
?
거기 △△경찰서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꿀꺽.
서.. 설마?
네? 제가 불법다운로드를 했다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요.
전 그런 사이트 가입한 적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데
누가 제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한 것 아닌가요?
휘
끙
글쎄 아니라니까요.
어.. 엄마...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주세요.
또.. 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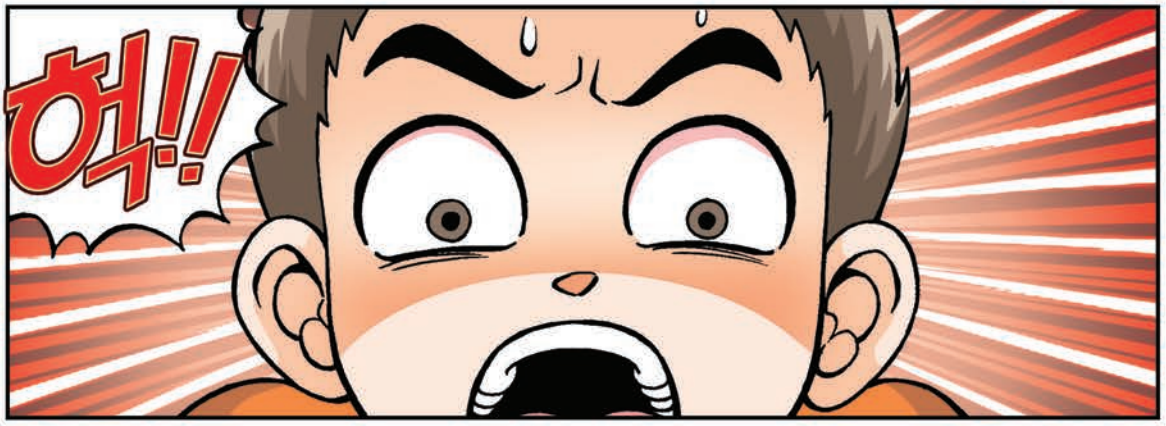

똘아..
아무래도 네가 엄마를 감옥에 가게 만들고 싶었던 게로구나.
…
아니에요. 엄마, 전 단지 14세 이하는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도 이용하는 것도 번거로워서
엄마 이름으로 가입했던 것 뿐이예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 이름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해?!!
잘못했어요. 흑흑흑.
어떡하죠, 여보. 경찰서에서 사실을 믿어 줄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 최대한 솔직히 말해야지.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저 양심껏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꽉 꽉
똘이가 아직 어려 저작권이 뭔지 몰랐던 것을 어쩌겠어요.
똘아, 됐다. 가서 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거냐.
죄송해요 엄마, 아빠.
저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겁하게 모른척했어요.
내일 휴가를 쓸테니 함께 경찰서에 가보자고.
똘이 덕분에 경찰서 구경을 또 해보겠군.
바로미!
바로미!!
아직도 화 안 풀렸니?
나 좀 도와줘!









저작권법 136조(권리침해죄)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병과 :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아울러 형벌을 주는 일.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콩밥 좀 잡수셔야
겠습니다.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았다.
우린 이제 알거지야.
내가
바보야!
바로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쿵
끄아아아!!
어떡해?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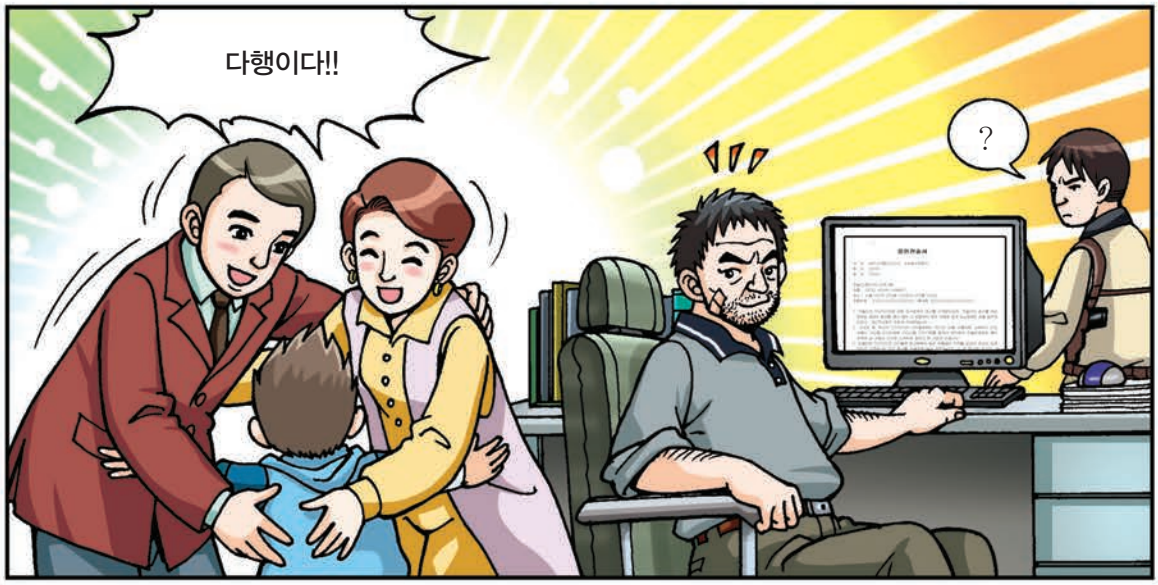

어머머머?
똘이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니?
잠을 조금
설쳐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지금 경찰서에 가실 거죠?
얼른 가요.
경찰서
흠...
아드님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이
었다구요...


에구... 무섭게 생겼다.
저.. 경찰 아저씨, 제가 잘못했으니 감옥에 넣으시려거든
절 넣어주세요. 저희 엄만 아무 죄도 없으세요.
불법다운 로드는
남의 재산을 훔치는 짓이나 마찬가지야.
그런 짓을 했으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죄송해요.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똘아...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거니?
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흠! 그러면...
반성문 10장 쓰도록 해라.
네?


저... 반성문만 쓰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까?
네.


한똘군이 처음이라
용서해주지만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다..
?
다..


다행이다!!
?


너 때문에 십년감수 했잖니.
꿍
꽥!
정말 다행이야.
아파도 좋아.
우리나라에선 불법다운로드가 워낙 많아서 문화계에서 매년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고 있어요.
또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일들을 막으려면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법에 대해 좀 더 잘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네! 뼛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벌떡


찰
눈치 볼 것 없어. 어서 와, 한똘!
신고
요 꼬맹이 녀석
단단히 반성하고 있는 눈치인걸...?
응? 이건 또 뭐야?!
학급사이트라고..?!
토톡 톡
헛!
이 녀석들 봐라...
띠리리리리


네. 대법초등 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찰서 입니다. 한똘군의 담임선생님 맞으시죠?
선생님 반 학생들이 인터넷상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연락드렸습니다.
네?
학급홈페이지에 온갖 불법다운로드한 파일들이 올라가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네?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네. 곧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
...네 ...네! 죄송합니다.
학급홈페이지가 불법의 온상이 되어 있다니...
HI


이럴 수가?!...
이 녀석들!!!!
타다다닥
펑
다음날
여러분.. 어젯밤
선생님이 우리 학급
홈페이지의 자료방을
저작권?
또
똑.
..없애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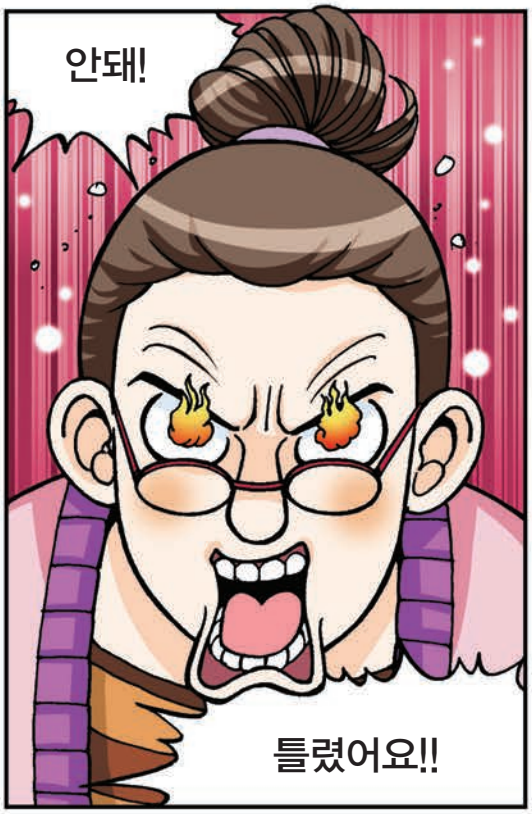

네?
왜요?
그거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건데!!!
헉!... 어제 경찰서에서 쓴 반성문 때문이구나.
탁
저작권?
탁
모르고 한 행동들 이지만 적당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야.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수업을 듣고 나면 자료방이 왜 사라졌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즐겨듣는 음악, 영화, 만화 등 이것들을 저작물이라 합니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 하죠.
그럼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 작 권 ?
톡
알어?
?
!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나 단체요.
전문용어로 말해서 '저작권자'요.
좋아요!
저 작 ?
탁
똘이가 맞췄구나.
와우~ 똘이 대박!
전문용어 까지..!
자! 그럼 모두들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요!!!


돈을 내고 받나요?
아니면 공짜로 받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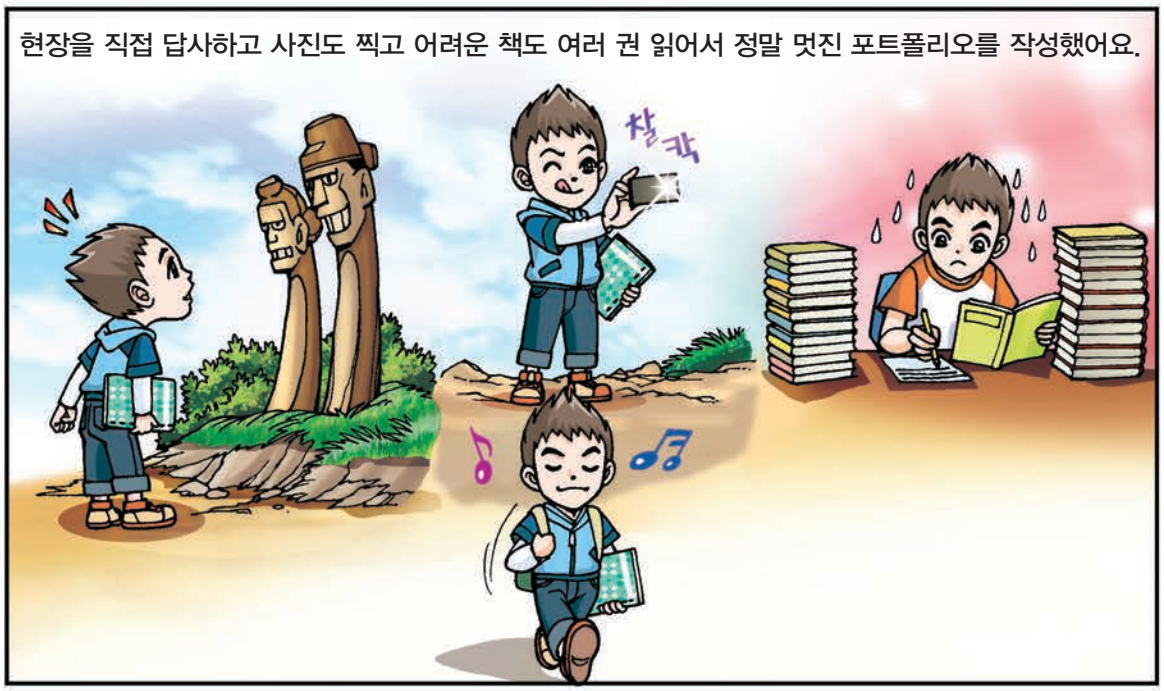

공짜로요!!


안돼!
틀렸어요!!


선생님이 헐크로 변신했다.
저런 모습은 처음 봐.


저작물은 엄연한 다른 사람의 재산이에요!
공짜로 쓸 수 없어요!!
탁


가령 여러분이 방학 동안 숙제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사진도 찍고 어려운 책도 여러 권 읽어서 정말 멋진 포트폴리오를 작성했어요.
찰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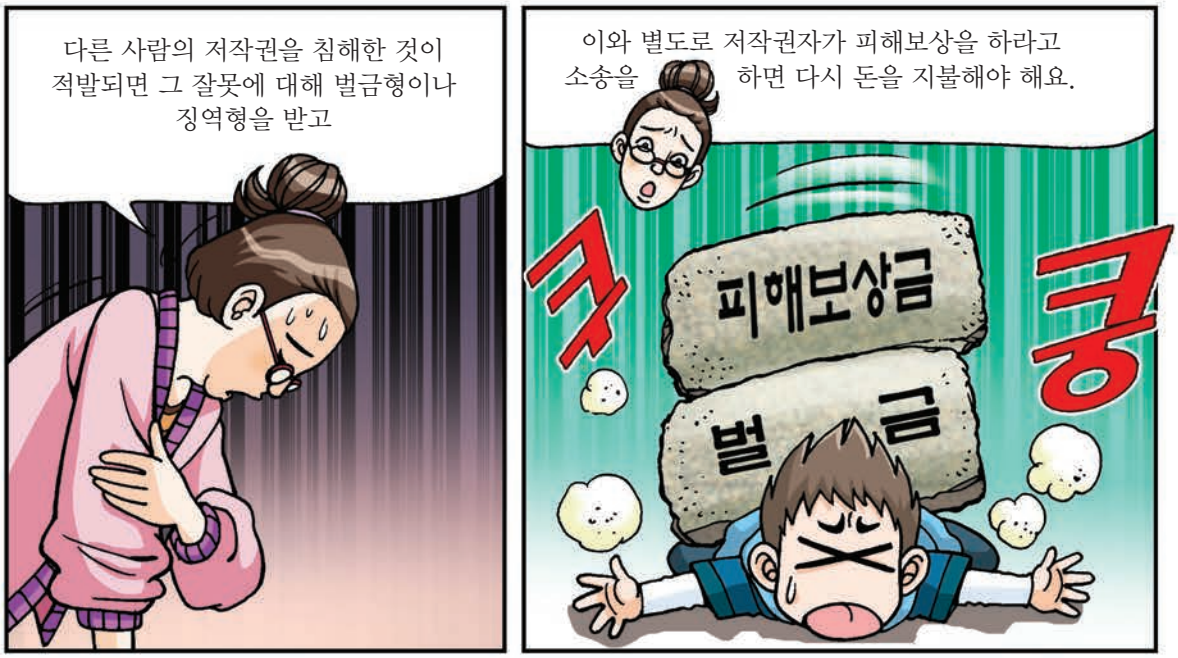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누군가가 그 숙제를
몰래 복사해가서 자기 것인 것처럼 제출하고
참 잘했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기까지
했어요.
싸다!
100원!!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삭
삭
억울해요!
열 받아요!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저작물들도 마찬가지 예요.
아...
저작물들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당연히 돈을 내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해요.
음원
돈


학급홈페이지 자료방에 음악파일, 소설 스캔본 등을 올린 행위는
모두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하는 불법 행위였어요.
불법...
어제 경찰 아저씨의 연락을 받고 선생님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역시...!


겨.. 경찰이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적발되면 그 잘못에 대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고
이와 별도로 저작권자가 피해보상을 하라고 소송을 하면 다시 돈을 지불해야 해요.
피해보상금
벌금
징
쿵


자칫하면 집안의 기둥 뿌리가
뽑힐 수도 있어요.
어.. 어떡해요 선생님.
저희 거지 되는거예요?
다행히 아직 저작권을 모르고 나이가 어려, 경찰 아저씨께서 경고만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대신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저작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네!!!
지금부터 무심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줄게요.
확
또독



〈학생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유형〉

1) 음악파일을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배경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음악, 동영상 및 이미지 파일, 시, 사진 등을 무단으로 웹사이트,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3) 웹사이트, SNS 등에 공유를 목적으로 파일 등의 자료를 올리는 경우.

4)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는 경우.

5)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6) 음악, 영화, 웹툰 등을 복사하여 공유하는 행위.

7) 노래가사, 스타사진 등을 웹사이트에(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사이트) 올리는 행위.


저..저게 다 불법이었어?
웅성
웅성
나.. 난 7가지 중 무려 5가지나 하고 있어.
난 6번을 무지 많이 하는데...


난 몽땅 다 하고 있어.
이상하다.. 난 분명 돈을 주고 정당하게 음악을 샀는데


왠지... 3번이 내 신경세포를 무지 자극하고 있어.


선생님, 전 돈을 주고 산 음악파일을 친구들과 함께 들으려고
학급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려 두었는데 그것도 혹시 불법인가요?
네. 불법이에요.


나리가 음악을 사며 지불한 돈은 나리 혼자만 듣도록 허용한 것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듣고 싶었다면 배경음악용 음악을 따로 사거나 개별적으로 음악을 사서 친구들에게 선물했어야 해요.
이럴 수가..
합법적이었다고 의기양양 했었는데...
아이쿠 부끄러워.
블로그에 신문기사를 복사해서 붙여두는 것은요? 선생님?
안돼요. 신문기사도 기자들의 창작물이므로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블로그에 올려둔 신문기사는 지우세요. 대신 주소를 링크해 두는 것은 괜찮아.
네...
그렇구나!


제가 영화를 캡처해서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것도 불법인 거에요?
그 경우도 영상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정당한 범위 안에서 적절히 인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어요.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이미지나 포스터를 함께 넣을 때는
돈을 벌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고,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해요.
패러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는 다른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얼굴은 귀해
돈 내고 봐!
알면 알수록 더 골치 아프네.
저작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것이었다니...
선생님.. 저작권법은 너무 어려워요.
그 복잡한 것을 어떻게 다 지켜요?


그만큼 저작권은 중요하고
민감한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저작권법을 지키는 것은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몫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에요.
또 저작자가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지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저작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잘가.
응. 내일 봐.
집에 가면 블로그 정리부터 해야겠어.
내가 그렇게 많은 법을 어기고 있는 줄은 몰랐어.


.....
똘아, 무슨 일 있어? 왜 아까부터 아무 말이 없어?
교실에서도 이상하더니...
소치과
한복


다른 친구들은 저작권법을 몰라서 어겼지만
난 바로미에게 들어 알면서도 어겼어.


꿈이 판사라면서도 이런 양심에 어긋난 짓을 했다니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똘아...


벌은 받지 않았지만 결국 친구를 잃고 말았어.
어머, 아직 바로미가 돌아오지 않은 거야?


아무리 간절히 불러도 오지 않아.
난 바로미에게 버림받았어.
주르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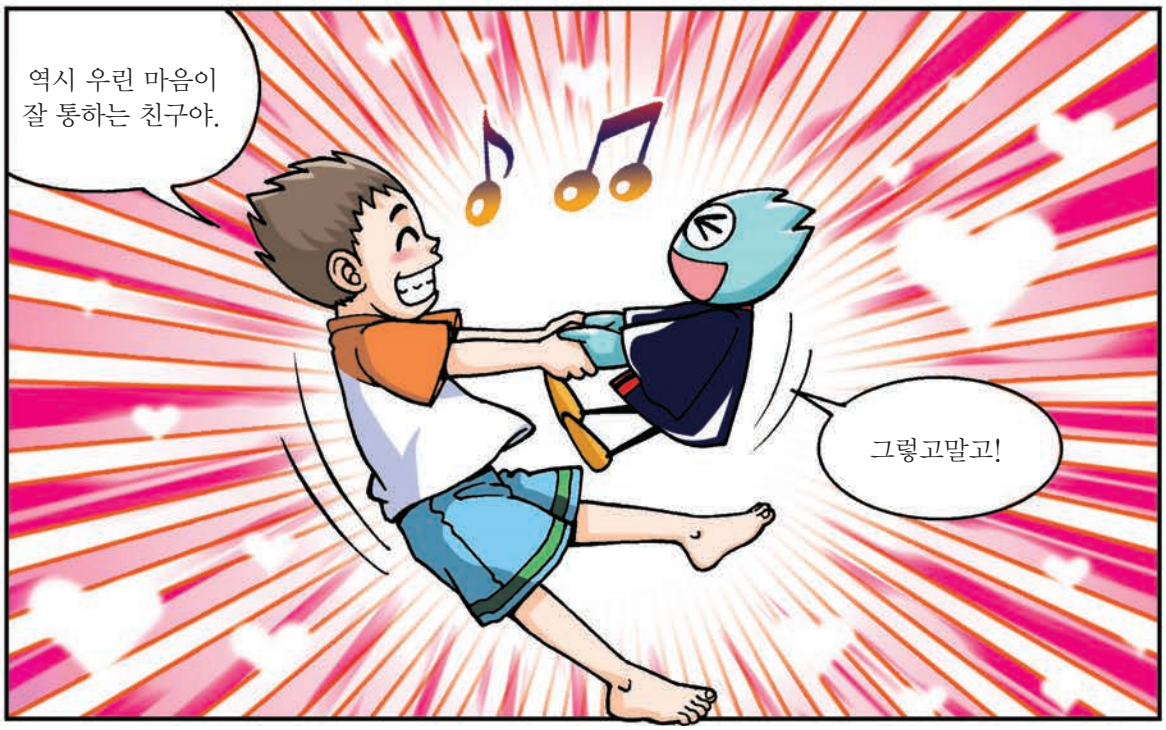

너답지 않게 울긴… 네가 반성하고 있는 것을 알면 바로미도 돌아올거야.
바로미와 넌 친구잖아.
정말 돌아올까?
……
아.. 아마도 어쩌면?
!
크흐흑! 바로미 너무해!!
바로미야. 내가 잘못했어.
이만 돌아와 줘.


네 덕분에 법의 소중함을 깨닫고 판사가 되겠다는 꿈까지 꿨어.
나한테 실망한 것 알지만 그래도 우린 아직 친구 맞지?
앞으로 네가 부끄럽지 않도록 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로미야, 어서 돌아오너라.
으이구! 뭐하냐? 나한테 제사지내냐?
깡
앗!
돌아왔구나 바로미!!
나 이제 용서해주는 거야?
친구 사이에 용서랄게 뭐가 있겠어~ 화해하는 거지.


고마워, 바로미. 네가 사라진 후에 저작권법에 대해 많이 공부했어.
그랬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지만
인터넷 안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흐아아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는 내가 앞장서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정보를 담은 블로그를 운영할 거야, 어때?
오옷~ 좋은 생각인데? 훌륭해.


역시 우린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야.
그렇고말고!



제2화 심화학습

저작권!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저작권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OX 퀴즈를 풀어 자기진단을 해 봅시다.

1. 저작권은 직업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만 주장할 수 있다. ( )





2. 다른 사람이 지은 만화책을 스캔하여 내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 )

3. 내가 창의적으로 한 숙제는 나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된다. ( )



4. 돈을 주고 산 음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듣는 것은 괜찮다.





5.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내 블로그를 예쁘게 꾸미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 )

정답 1. (X) 2. (O) 3. (O) 4. (X) 5. (O)

해설

1. 저작권은 창작 활동을 하는 전문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4. 돈을 주고 산 음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0개	저작권을 모르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1~2개	저작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세요!
3~4개	저작권에 대해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하세요!
5개	저작권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제 3화
층간소음,
법원 조정으로 해결하다
아니!
우리 아파트에
당신 혼자만 살아?
밤낮으로 쿵쿵대니깐
내가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저희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자꾸 소리가
나는가 봅니다.
주의를 기울인 게
이 정도야? 멋대로
했다간 아파트가
폭삭 주저앉겠네.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지요.
그 말만
도대체
몇번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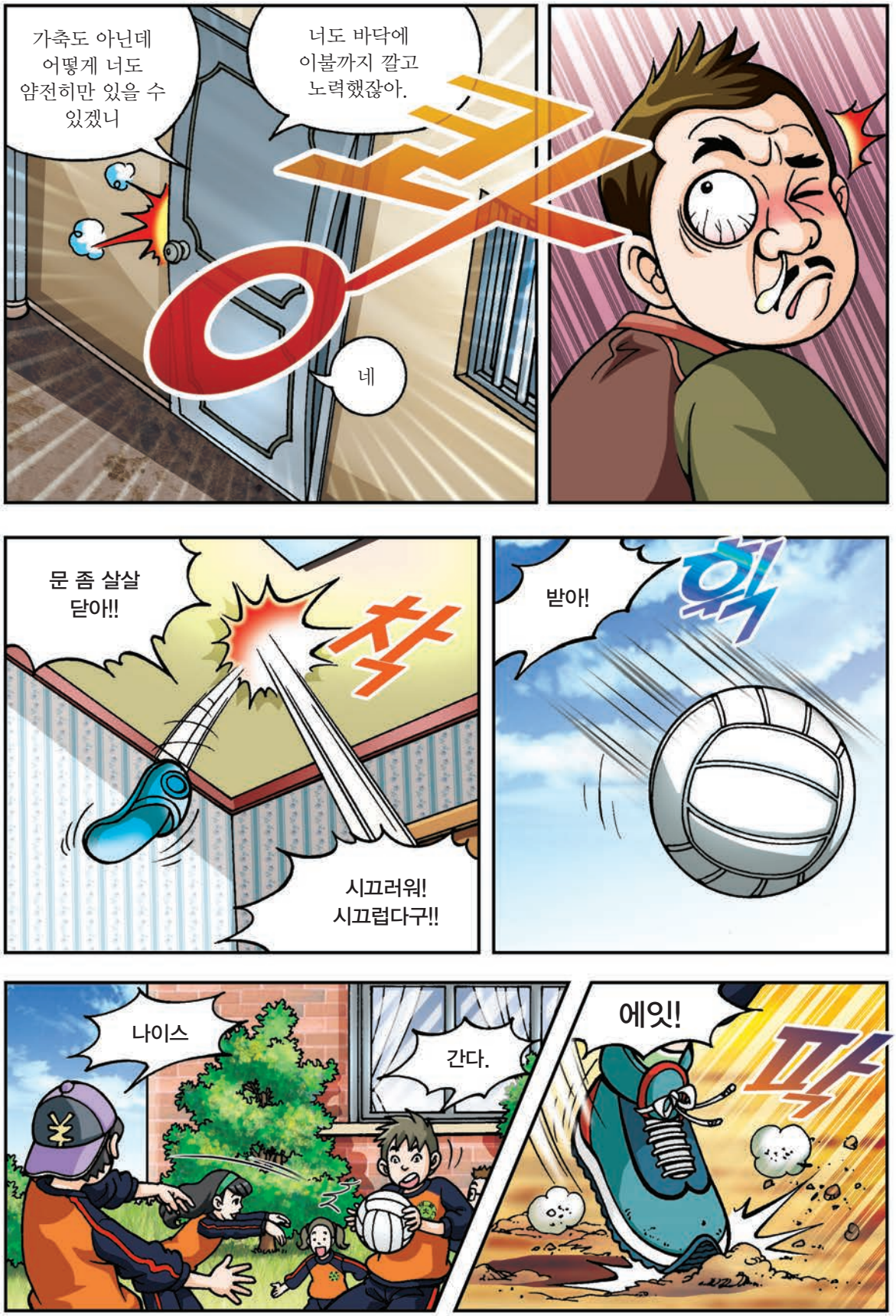

내 오늘은 순순히 물러가지만 다음에 또 올라오게 되면
좋은 꼴 못 볼 줄 알아?! 알았어?
후우……


갔어요?
응


뭐 저런 몰상식한 사람이 다 있어 반말이나 하고
아파트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소음은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예민한 사람 같은데 어쩌겠어.


지성인인 우리가 참아야지.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쿵쾅대는 바람에……


가축도 아닌데 어떻게 너도 얌전히만 있을 수 있겠니
너도 바닥에 이불까지 깔고 노력했잖아.
네
퍽
문 좀 살살 닫아!!
착
시끄러워! 시끄럽다구!!
받아!
휙
나이스
간다.
에잇!!
따


에잇!!
툭
뚤아 뭐해?
스트레스 해소!
요즘 아래층 아저씨 때문에
조심조심 다닌다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거든.
으이구, 싱거운 소리 말고 토스 연습이나 하자.
휙
탁
싱거운 소리가 아냐. 어젯밤에도 아래층 아저씨가 올라와서 시끄럽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갔다고…
이번 달 들어 세 번째 올라 오신 거야.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전 예비 징후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해.
…!
어머, 그렇다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뉴스를 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다가 폭행, 방화에 살인까지 한다잖아.
안 그래도 그 점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아저씨가 다짜고짜 화내고 욕해도 그냥 참고 있어.
빙 그르르
에잇! 억울해!!
누군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줄 아나?!
퍽
까악!
앗!! 실수!
정의의 스파이크!
퍼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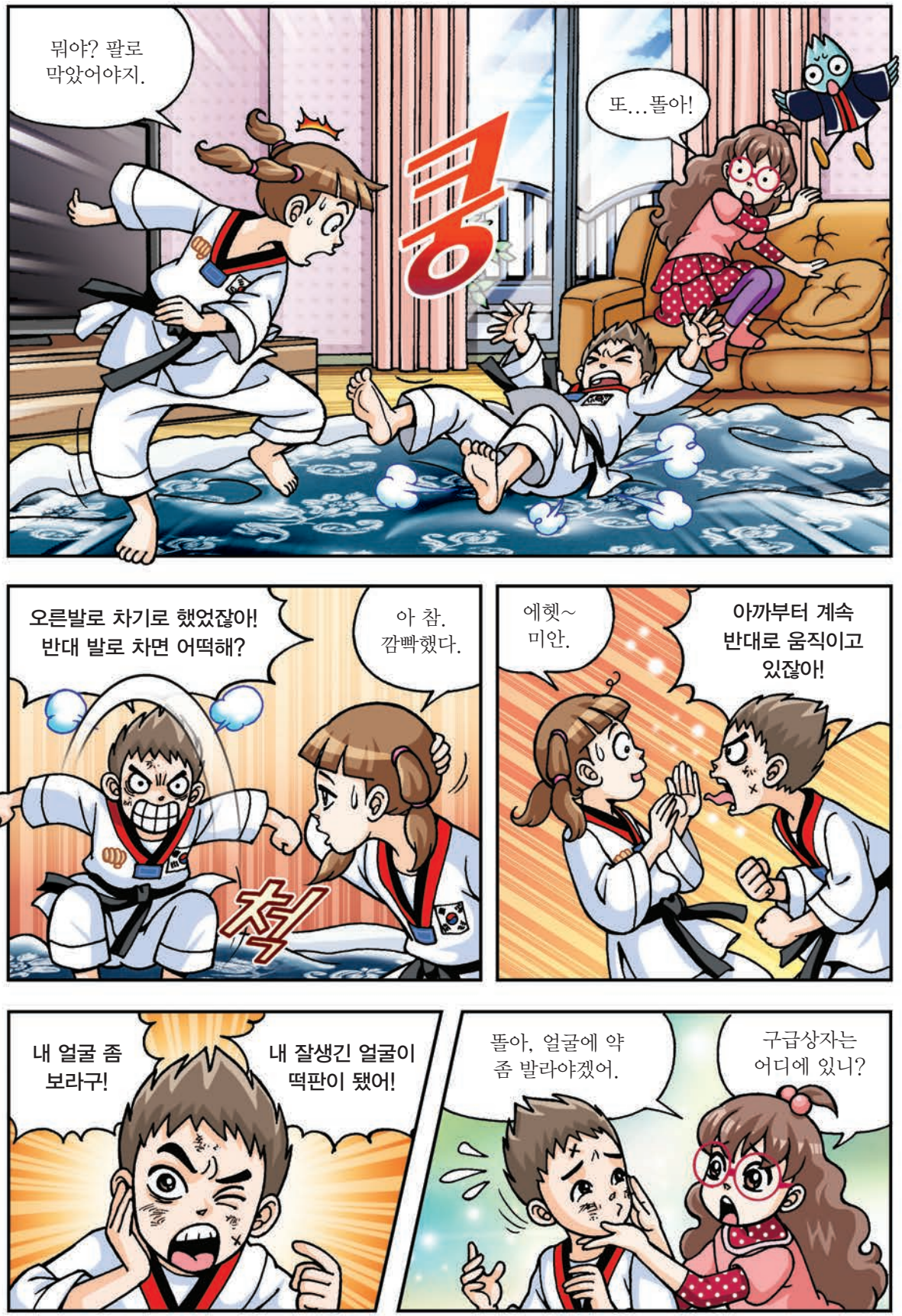

꽥
나리야, 괜찮니?
응. 고마워 바로미.
나리야, 미안해. 내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난 괜찮아. 그보다 네 이마에 혹 났어.
바로미, 얼굴에 공을 던지다니 너무하잖아!
내 생각엔 네 탓도 있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실수로 공을 세게 던지긴 했지만…
아니, 그거 말고.
층간소음 말야. 너도 어젯밤 방안에서 태권도 연습했잖아.
아래층 아저씨가 크게 화내실만 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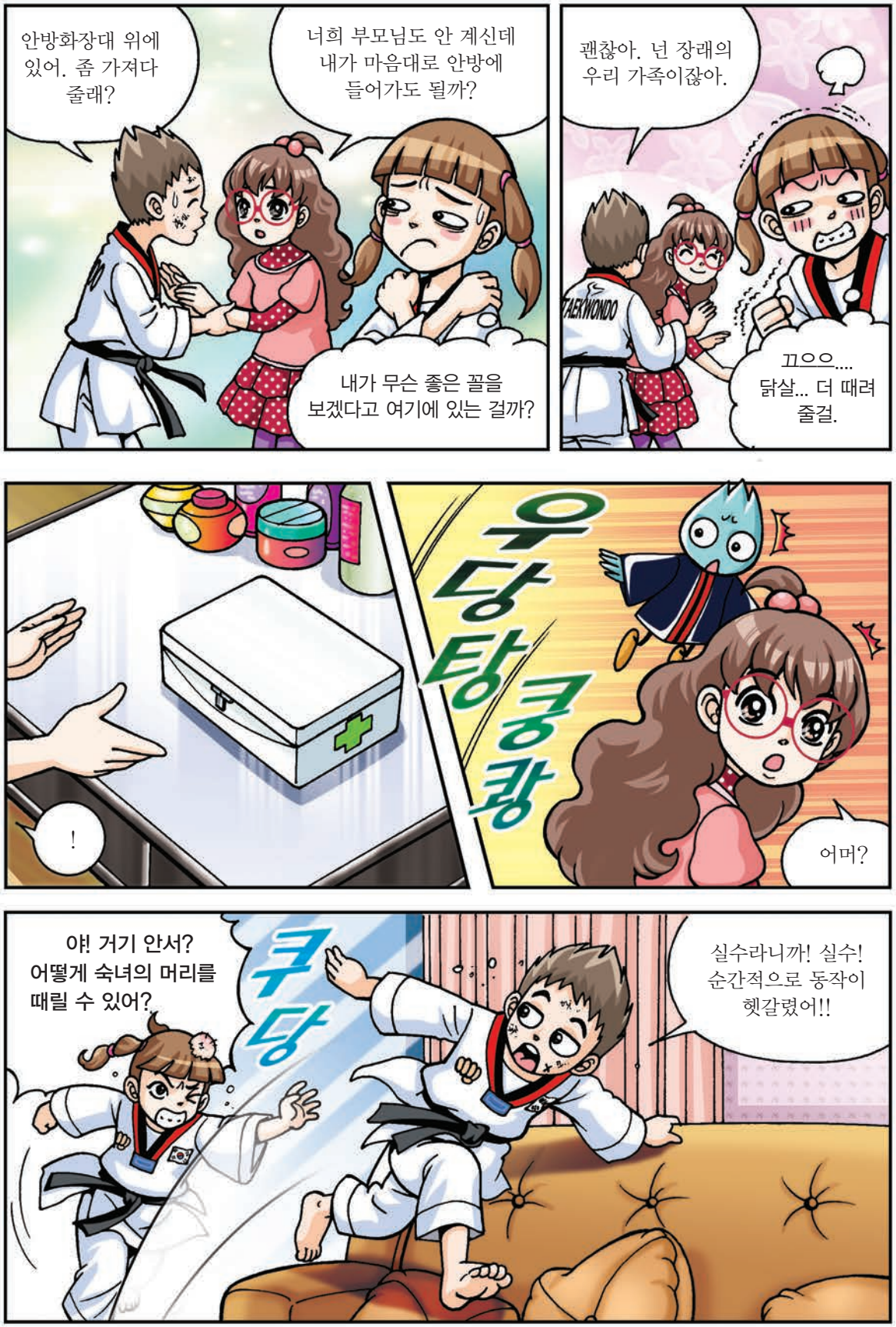

도대체 바로미 너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아래층 아저씨 편이야?
난 누구의 편도 아니야.
오로지 정의의 편에만 서!
쳇! 나도 할 말이 있다구. 다음 달 학부모초청 학예회에서
시범대련을 선보이기로 했는데 연습을 하나도 못했단 말야.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하면 안 돼?
내가 태권도를 잘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연습하는 건 좀 부끄럽달까...
의외로 섬세하다니깐...
아무튼, 나도 아래층 아저씨 생각해서 최대한 조심조심 연습했다고!
그런데 연습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아래층 아저씨가 올라오셔서 욕설을 하셨어.


우리 집 위층도 한 번씩 쿵쾅대지만
우리도 참고 산다고. 아저씨도 좀 참아주면 안 되나?
투덜투덜
흐음…
위층에 사는 게 그냥 죄인이야. 죄인!
꽤 심각하네.
똘아!!
으악!
김진실! 깜짝 놀랐잖아.
좋아. 언젠가 복수해 줄테니 두고 보자.
그건 됐고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시간? 혹시 데이트 신청이냐?
데이트?


잠꼬대는 자면서 하셔!
학예회 때 나랑 같이 대련하기로 했잖아.
같이 동작 맞춰봐야지.
아아... 그랬구나. 데이트 신청인 줄 알고 섬뜩했어.
긁적 긁적
그럼 영광인거지. 왜 섬뜩이냐?
컥!
뻥
어쨌든 시간은 있지만 연습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혹시 너희 집에서 연습하면 안 되겠니?
우리 집은 안돼. 큰언니가 재수생인데 히스테리가 장난이 아니야.
바늘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대학에서 떨어진 것 마냥 소리를 질러.
크윽... 우리도 아래층 아저씨가 예민해서 안 되는데.
재 왈가닥 맞지?


아무리 예민해도 재수생만 하겠어? 너희 집에서 연습하자. 깃털처럼 가볍게 뛸게.
… 안 되는데 … 끄응…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반드시 약속 지켜야 해.
동작만 대충 맞추고 가볍게 뛰기로!
걱정마. 난 약속은 무겁고
발차기는 가벼운 여자야.
TAEKW


뭐야? 팔로 막았어야지.
또...똘아!
쿵
오른발로 차기로 했었잖아! 반대 발로 차면 어떡해?
아 참. 깜빡했다.
척
에헷~ 미안.
아까부터 계속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
내 얼굴 좀 보라구!
내 잘생긴 얼굴이 떡판이 됐어!
똘아, 얼굴에 약 좀 발라야겠어.
구급상자는 어디에 있니?


안방화장대 위에 있어. 좀 가져다 줄래?
너희 부모님도 안 계신데 내가 마음대로 안방에 들어가도 될까?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여기에 있는 걸까?
괜찮아. 넌 장래의 우리 가족이잖아.
끄으으.... 닭살... 더 때려 줄걸.
TAEKWONDO
!
우당탕쾅
어머?
야! 거기 안서? 어떻게 숙녀의 머리를 때릴 수 있어?
쿠당
실수라니까! 실수! 순간적으로 동작이 헷갈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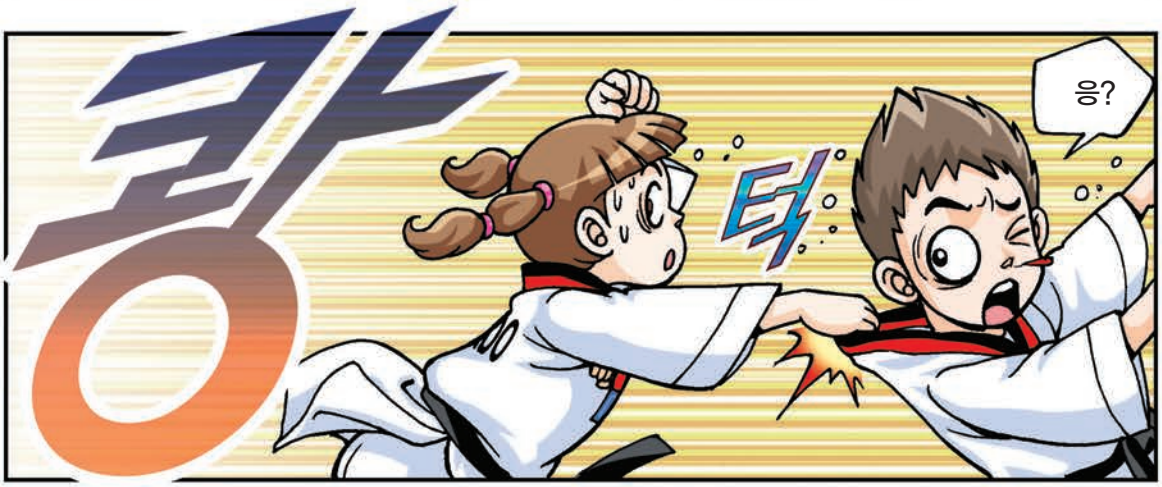

거짓말마! 좀스럽게
내 실수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때린 거잖아!
아니라니까!


아이쿠!
애들아 진정해.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지.
대화로!!
이 자식!
이번에도 일부러
피했지?
그럼 그
날라차기를
고스란히
맞으라고?


아악! 야!
이건 아니잖아.
야압!
헉!
상단
옆차기!


서!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항복할게.


아아... 고질라 대
용가리의 싸움인가...
나리야, 끼어들지마.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져.


쾅
턱
응?


야! 문 열어!!
쾅
쾅
당장
열지 못해?!!
큰일 났다.
아...아래층
아저씨다.
예민하다던
그 아저씨?


셋 셀 동안 안 열면
문짝을 부숴 버릴 테다!
쾅
쾅
쾅
예.. 예.
지금
나가요.
어떡해?
빨랑
열어!!
여.. 열어요
잠깐만요.
허걱!!
아.. 아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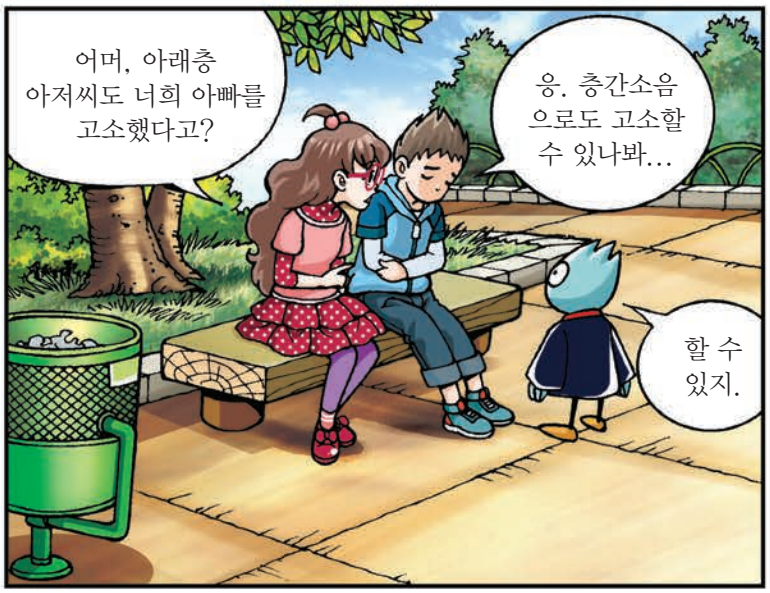

안돼!!
에잇!!
깡
TAEKWONDO
뉴
팟
꼬아아!!
머..머리가 쇳덩이?!
으아아... 소..손이..!
퉁퉁
똘아, 괜찮아?
괘..괜찮아.
무서워...
후우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하루가 멀다하고 쿵쾅거리는 이유가 뭐야? 죽고싶어?
시끄러! 너도 맞기 싫으면 썩 꺼져!!
아저씨! 무슨 짓이세요? 제 친구 얼른 놔주세요!
112!! 112에 신고해야해.
똘이가 크게 다치겠어.
TAEKWON
아니! 저.저런!
또..똘이가...
우리 아들에게 무슨 짓입니까?
미쳤습니까?
오냐! 그래 미쳤다.
아빠...


층간소음 때문에
내가 미쳤다고!!
빠악
이게 무슨
소란이람?
층간소음
때문에 싸움이
난것 같아.
쯧 쯧...
완전히
난리났어요.
이웃 간에
주먹질까지
오가고
완전히 말세구먼
말세야.
덜레
덜레
잠깐만 비켜주십시오.
경..경찰까지...


똘이의 태권도 연습은 아래층 아저씨가
폭행죄로 경찰서에 잡혀가는 것으로 끝이 났다.
왜, 날 잡아가?
나도 피해자라 이거야!!
당신들도 저놈의
집구석 아래층에서
살았으면 나보다
더 했을걸?
경찰
POLICE
폭행죄로 고소
하겠습니다.
고소? 나야말로
네놈을 고소해주마. 그동안
층간소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 줄 알아?
저는 물론
제 아들까지
때린건 절대
용서못합니다.
경찰서
아니, 애들이 뛸수도 있는거지.
그럼 뭐 애들이 가만히
앉아서 놉니까?
어느정도
여야지!


경찰서에까지 와서 왜 이러십니까?
이웃 간에 대화로 풀어야지요.
웬만하면 합의 하세요.
합의?
절대로 합의 못합니다. 고소하겠습니다!!!





Tip

층간소음과 소송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을 일으킨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피해자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넌 무심코 한 행동이었지만 아래층 사람들의 환경권을 침해했지.
어제는 굉장히 시끄러웠던 걸 나도 인정해.
하지만 아래층 아저씨는 평소에도 빈번하게 올라와서 우리 가족을 괴롭혔다구!
층간소음은 단순히 소음뿐만 아니라 집 전체가 진동하여 온 몸에 스트레스를 받게 해.
게다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소음을 듣게 되면 작은 소리라고 해도 더 큰 불쾌감을 유발해.
그렇구나.
하긴, 너도 어제 진실이가 놀라게 했을 때 굉장히 불쾌했었지?
으응…


아래층 아저씨도 아마 매일 그런 기분이 셨을테지.
....
바로미...
내가 아저씨에게 맞을 만큼 잘못한 거였을까?
세상에 정당한 폭력이라는 건 없어. 내가 막아주지 않았다면 넌 아마 크게 다쳤을거야.
다만 난 네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 일을 보기를 바랄 뿐이야.
끄응...
아래층 아저씨와 너희 아빠가 서로 고소하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
잠깐만!!
탁


스르르 끙...
!!!
.....
애 얼굴에 저렇게 상처가...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 아니지!
살.. 살기가...
저 녀석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아. 진짜 어색해 죽겠네.
승강기는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거야?
똘아, 층수 눌러야지.
아차차차!


아야야야...
얼굴 들고 다니기 창피하게시리 멍자국이 쉽게 사라지지 않네.
전치 2주나 나왔잖아요. 쉽게 사라지겠어요?
아빠... 진짜 아래층 아저씨 고소하실 거예요?
왜? 신경 쓰이니?
아빠가 맞은 건 참을 수 있지만 아직 어린 너까지 때린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구나.
너까지 험한 꼴 보게 하기 싫어서 네 진단서는 끊지 않았지만
그날 너 코피까지 나고 얼굴이 엉망이 되었었잖니.
아.. 아니 그건 진실이에게 맞은 건데...
Why?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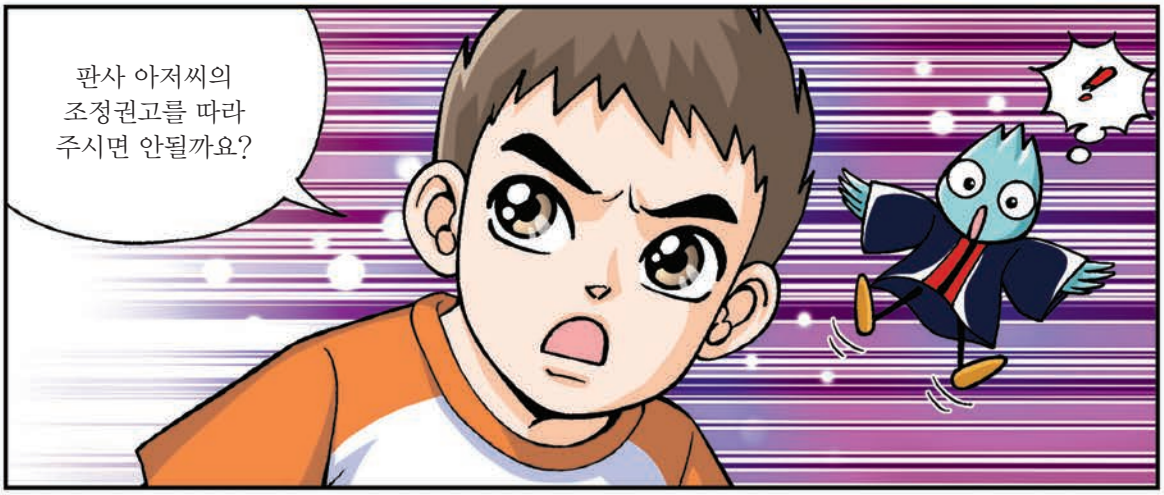
조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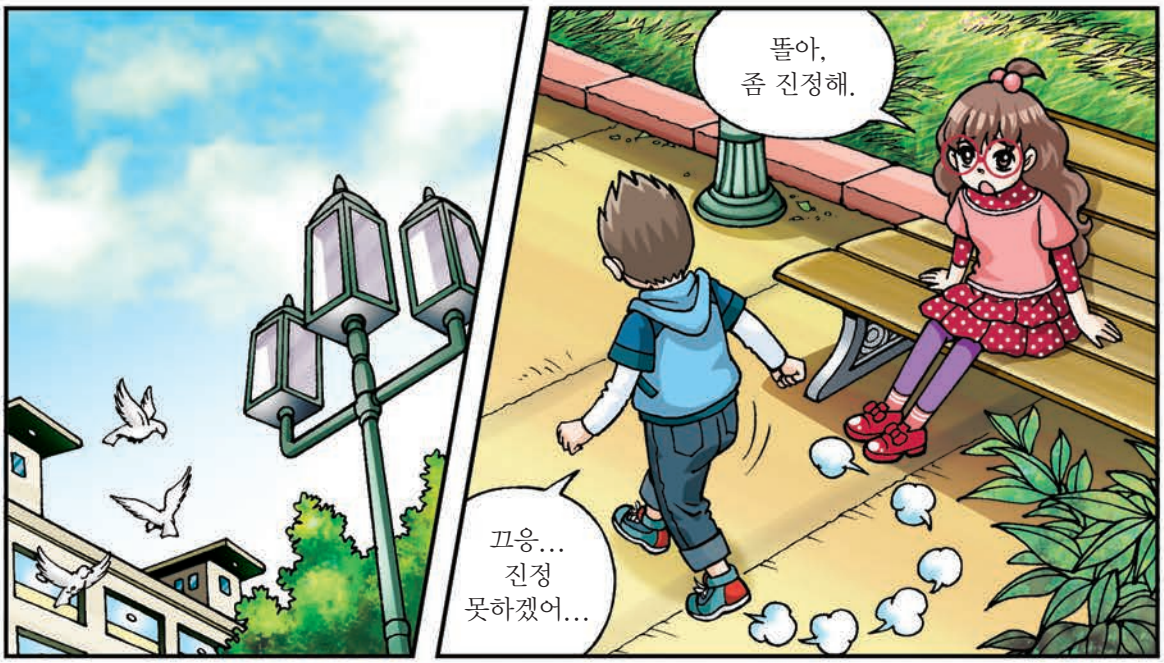
조정담당판사 혹은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들 사이에 개입해 양쪽을 설득하고 양보하도록 유도해 합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쪽이 합의해 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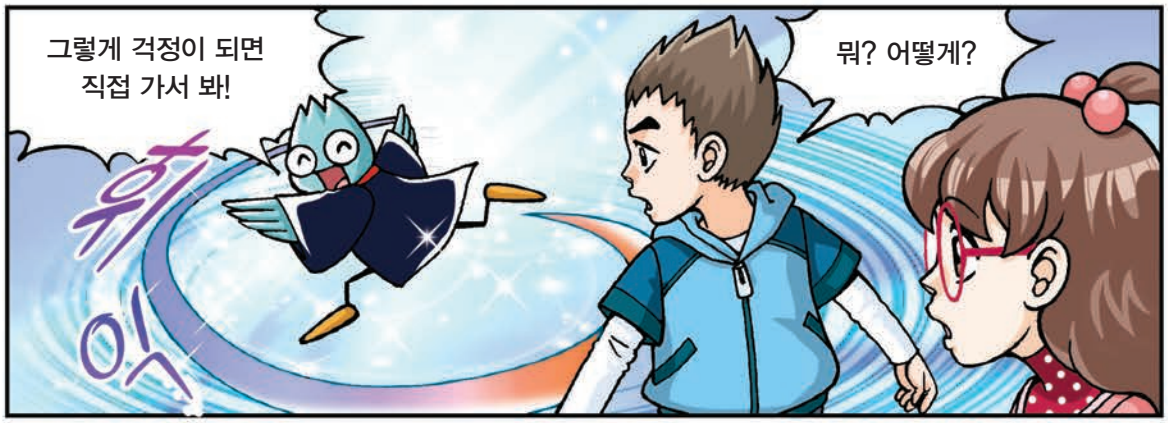
조정인이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들이 이에 따를지 따르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조정이 실패로 끝나면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판사 아저씨의
조정권고를 따라
주시면 안될까요?
!


똘아,
좀 진정해.
끄응…
진정
못하겠어…


지금쯤 아빠가
아래층 아저씨랑
법원 조정실에서
마주앉아
계실 텐데 과연
괜찮을까?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3차대전이 시작
된다고!
으이구~
오바는, 너무
터무니없잖아.


그렇게 걱정이 되면
직접 가서 봐!
휘익
뭐? 어떻게?


벌써 잊었니?
이 바로미가
있잖아.
앗! 그래.
숏다리 투명 인간
요술!
나 눙
까악!


와~ 여기구나
조정실!
아빠다.


법정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인걸.
아빠. 판사님 말씀 잘 듣고 잘 결정하세요.
나성깔 씨.
나성깔 씨가 한걱정 씨와 한똘 군을 때린 것이 사실입니까?


네! 하지만 원인은 이 작자... 한걱정 씨네 가족이 제공했습니다.
!


저는 새벽에 트럭으로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합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최근
밤마다 위층에서 소란을 피워 제대로 자지를 못했어요.


피곤한 건 둘째치고 수면부족으로 몇 번이나 사고를 낼 뻔 했다고요.
헉!


그랬구나... 난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
한걱정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군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다 나았습니다.
그럼 평소에 나성깔 씨를 힘들게 할 만큼 많은 소음을 내나요?
최근 똘이가 학예회 연습을 위해 밤마다 태권도 연습을 했습니다. 나름 이불도 깔고 조심했는데
그렇게 피해가 클 줄은 몰랐습니다.
알긴 아는군
그럼 나성깔 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이군요.
아저씨가 아직 화가 안 풀려서 걱정이야...
네.
나성깔 씨는 한걱정 씨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었고
한걱정 씨는 나성깔 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니 서로의 잘못이 있군요.


이웃사촌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두 분이니 서로 화해하시고
치료비를 물어 주는 쪽으로 합의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동안 받은 고통을 주먹 한 대로 용서하라고요?
전 못합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 해도
전 절대로 합의 못합니다. 그냥 법대로 해 주세요!
.....
나성깔 씨.
벌떡
죄송합니다.


사실 처음 나성깔 씨가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오셨을 땐 미안하게 생각했지만,
여러번 찾아오시자 점차 나성깔 씨가 예민하다고 넘겨짚어 생각했습니다.
에엥?
....
저희 아들 똘이가 그러더군요. 나성깔 씨 입장에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어머. 그랬었어?
응...
인터넷으로 층간소음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헉! 층간소음 때문에 어떤 아주머니는 유산까지 했다고?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구나.


층간소음 문제를 대화로 함께 풀어 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끄으응.....
이웃 간의 대화가 단절된 현대사회에선 종종 이웃끼리 사소한 일에 감정을 앞세우다
큰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고 가끔은 끔찍한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두 분의 케이스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아저씨... 화 푸시고 합의해 주세요. 네?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한 건물에 사실 두 분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지요.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소송은 배상액수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


한걱정씨 께서 먼저 사과를 하시고
손을 내미신 만큼 나성깔 씨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아저씨가...?
과연 판사님의
말씀을 받아
들이실까?
끄으으으
벌떡
크으으으윽!!
황김에 돌이를 때리고
한걱정 씨까지 때린 점
죄송합니다.
나..
나성깔 씨...


분한 마음에 모른 척 하고 있었지만 아이에게
폭력을 쓴 것도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합의하시는 겁니까?
네! 한걱정 씨 앞으로 좋은 이웃이 되도록 서로 노력 합시다.
감사합니다. 나성깔 씨.
와아~ 결국 화해를 하셨군. 잘됐지?
응!
아저씨 성격 한 번 화끈하시네.
법원에선 재판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도 운영하는구나.







Tip

인지

인지는 국가에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되는 증표이다. 소송을 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때도 법원에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조정은 인지 값이 소송에 비해 싸고, 만약 조정이 실패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소송에서 조정인지 값을 제하고 난 나머지 인지 값을 내면 된다.






똘이네의 층간소음 갈등이 해결된 뒤에
아파트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웅성
웅성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302호에
이사 왔어요.
어머,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봤었죠.
아이구
처음 뵙겠습
니다.
자리가 좁군...
302호
새내기일세~


예전부터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흔히 써왔죠.
하지만 우리들은 이웃사촌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천장, 벽, 바닥을 함께 사용하는 사이니까요.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규칙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옳소.
저녁 10시 이후에는 가능한 한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는게 좋겠어요.
밤에는 소리가 크게 울리거든요.
의자 다리에 망을 씌우면 옮기거나 끌 때 소리가 작게 날 텐데...
거실에선 모두 슬리퍼를 신고 움직이면 걸을 때 나는 소리를 줄일 수 있을 게야.
아래층과 의논해 아이들이 노는 시간을 정해주는 것도 좋을 듯해요.


저기... 똘이 아빠. 내가 퇴근하는 시간이 8시니까 똘이에게 꼭 말해주슈.
네. 반드시 기필코 틀림없이 말하겠습니다.
!
알았지. 반드시 왼발로 차야 해. 내가 오른팔로 막을게.
알았어! 알았다고 잔소리 좀 그만해.
창피해서 밖에서 연습 못 하겠다더니 …
방바닥에 철판을 깔 수 없으니 얼굴에 철판을 깔겠대.
어이~ 똘아 태권도 연습하냐?
아…


안녕하세요 아저씨.
헉! 내가 신고한 아저씨다.
학예회가 언제냐?
내일이요. 준비는 이제 완벽하답니다.
오호... 나도 내일 쉬는 날인데 한번 보러 갈까?
네! 꼭 오세요.
대법초등 학예회
그리고 학예회날...
진실이는 마지막까지 오른발과 왼발을 헷갈렸다.
엥? 쟤가 또...
앗! 실수...
꽥!
헉!
저런...!



제3화 심화학습

법적으로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조정'도 있어요.



조정이란 무엇이며,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조정은 법원에서 다루기는 하지만 정식의 재판을 하지 않고 중립적인 제3자(조정인)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서로 간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은 법원이 판결로써 다툼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서로의 합의에 의해 조정이 끝난다고 하는데,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못한 것으로 되고 재판과정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간 감정 악화로 인한 소모적인 대립을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입니다. 또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제도는 '정의와 평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래조정이란 무엇인가요?





법원에서 하는 '조정'이라고 하는 다툼 해결 방식을 초 · 중등학교들이 또래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또래조정에 관해서는 4권에서 다시 소개합니다.

제 4 화

재판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흥! 웃기시네. 누가 여자를 학생회장으로 뽑냐?
집에서 소꿉놀이나 할 것이지.
여자애들은 걸핏하면 울고 삐치잖아.
여자가 학생회장이 되면 우리 대법초등학교는 끝장날걸?! 난 그냥 전학 갈거야.
너희 이 피켓으로 맞아볼래?
우왕~ 동네사람들!! 기호 1번은 피켓으로 사람을 때린대요.
무서워~ 무서워~
거참 얄미운 친구들이네.
똘아, 참아. 일부러 저러는 거야. 쟤들은 3번 후보 왕재수의 친구들이거든.
우쒸!! 저 약아빠진 녀석들!!
앗


2번
이유식!
2번 뽑자
~그래~
이유식
2번
이유식!
어머
유식이네.
공약
재미있
학교
크릉~ 우리의
강력한 라이벌이
오셨군.


여러분. 저는
우리학교를 밝고
재미있는 학교.
지식만이 아니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학교로 만들
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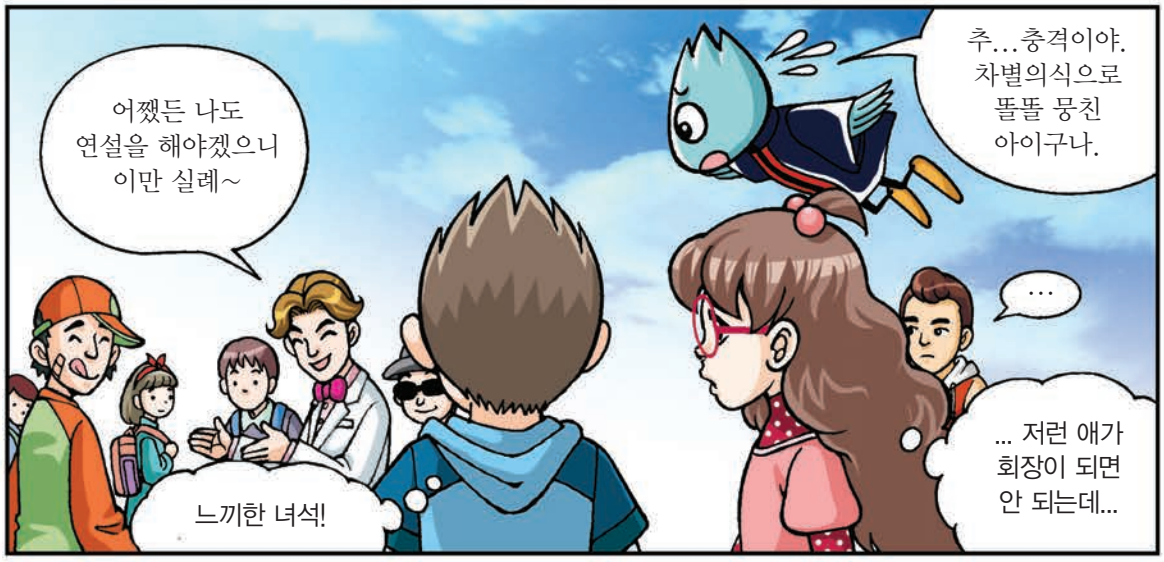

오호~
쾌활해
보이는
친구네.
유식이
짱!!


유식이는 착하고
배려심도 많아서 인기
가 많아.
나리야, 라이벌을
칭찬하면 어떡해.
크크... 나리보다
똘이가 더 선거에
열성인가보네.


이 혼혈아!!
너네 나라로
돌아가!!


넌 필리핀 사람이잖아.
왜 우리나라 물을 흐려?
공약
2번 봅자
나... 난 너희랑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야.
거짓말하지마! 너희 엄마가 필리핀 사람 맞잖아.
흥!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 넌 그냥 필리핀 가서 살아.
KOREA of METROPOLIS
더 이상은 못 참아!!
저런 못된 말만 하는 입은 이 두 주먹으로 봉해주겠어.
똘아, 안돼!
엥?


한똘. 매사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아.
오오오옷~ 대법의 희망!
기호 3번 왕재수!
왕재수, 네 친구들이 먼저 유식이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서 똘이를 화나게 했다구.
그랬어? 내가 듣기엔 내 친구들은 사실만 말한 것 같은데~
뭐라고?
!
그럼 네가 여탕 가는 여자지
남탕 가는 남자야?
재도 어쨌든 반은 필리핀 사람인 혼혈이고...
사실을 받아들이는게 그렇게 괴로워? 왜 발끈하고 그래?


어쨌든 나도 연설을 해야겠으니 이만 실례~
느끼한 녀석!
추...충격이야. 차별의식으로 똘똘 뭉친 아이구나.
...
... 저런 애가 회장이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급식실을 5성급 호텔 뷔페로 바꾸고
럭셔리한 실내수영장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파도풀과 미끄럼틀은 옵션입니다.
왕 재 수
공약 호텔같은 학교 관광한 학교
재미있는 학교 사이좋은 학교
와우~ 순간의 한 표가 행복을 좌우한다. 3번 왕재수.
K
H
오오옷!! 굉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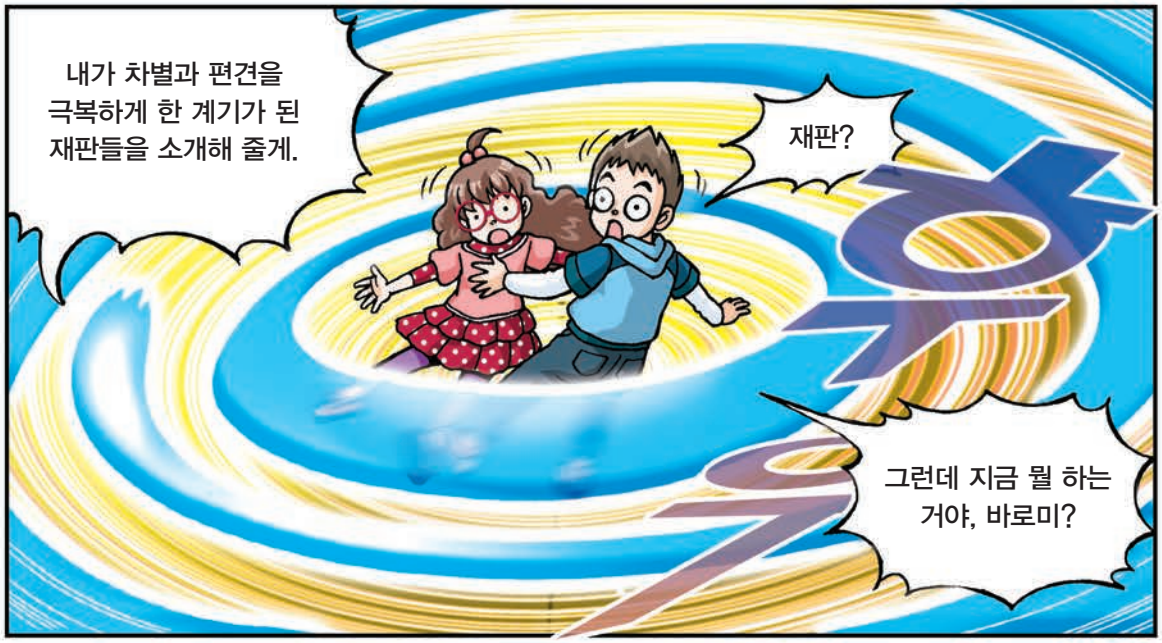

호...호텔 뷔페?
실내 수영장?


야! 너 정말로 그 선거공약이 다 가능한 거야?
어려울게 뭐가 있겠어? 돈만 쓰면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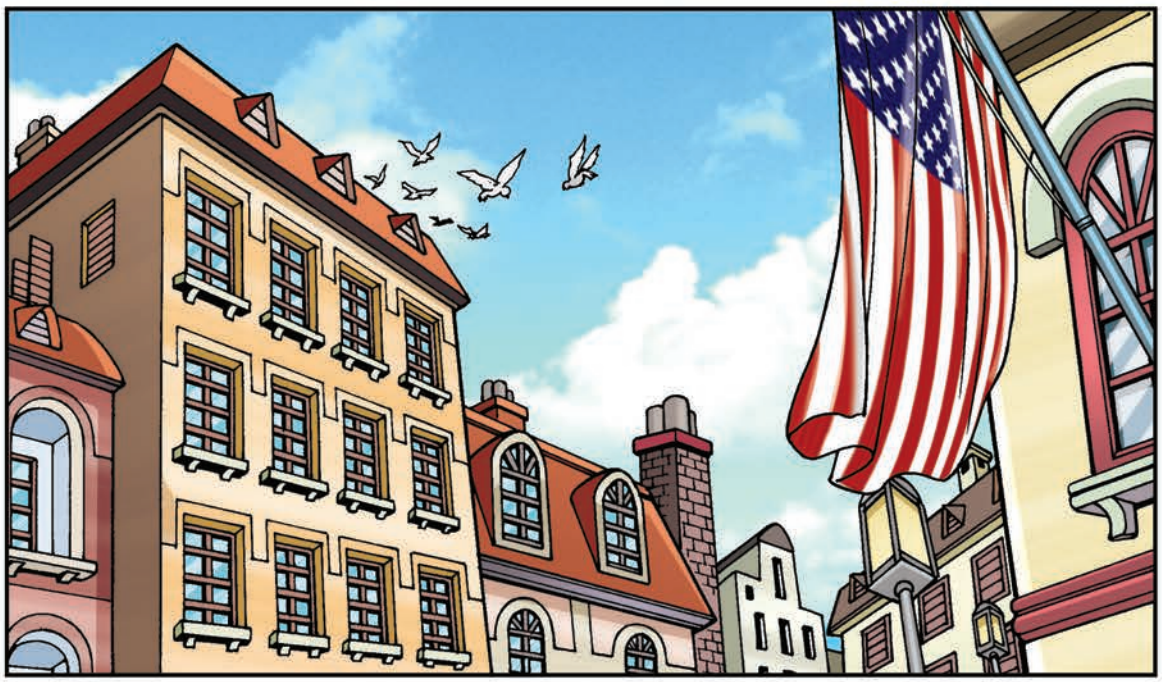

연약한 여자나 반쪽짜리 한국인 보다는
학교를 더욱 풍요롭게 살찌워줄 저 기호 3번 왕재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호 3번
재 수
K
옳소!!
와 아
KORE
O
METROP
무조건 너 찍는다.
그리고 근처 호텔 뷔페에서 조촐하게 70여 가지 요리를 마련했으니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따라 오세요~
왕재수!
왕재수!!
대박!
터~~엉


이럴 수가...
유식이를 지지하던 녀석들까지 모조리 왕재수를 따라가 버렸네.
나...나리야, 똘아 난 먼저 갈게...
그...그래... 잘가, 유식아..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후보자들이 저렇게 밥을 사거나 선물을 주는 것
선거 후에 답례를 하는 것 등이 모두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어이가 없구나.
녀석들은 그게 불법인지도 모르는 거야.....
아으으으..!! 어떡하지?
분해!
털썩
나리야?
선거에서 지면 왕재수의 차별과 편견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왕재수에게 이길 자신이 없어졌어.


나리야… 울지마.
니가 울면 나도…
……
안 울어!
울면 왕재수에게
지는 거잖아!!
깜짝
헉!
너…
울었니?
……
아니.
이거 꽤나
심각한데…
웅
그렇다면…!!
으랏차차차!!!
기운 내자
얘들아!!


내가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게 한 계기가 된 재판들을 소개해 줄게.
재판?
그런데 지금 뭘 하는 거야, 바로미?


시간이동을 하는 거지! 1872년의 미국으로!
팟




여러분!
미국을 이끌어 갈
차기 대통령감은
오직 공화당의
그랜트뿐입니다.
옳소!


옳긴 개뿔~
난 자유공화당의
정책이 마음에 들어.
미국은 이제
개혁이 필요한
때야.


어머, 무슨 이야길
그리 심각하게
하세요.
커흠! 숙녀분께선
상관없는
이야기랍니다.


어머, 여기도
선거 중인가
보네.
그것도
대통령선거!!
맞아! 그리고
이곳은 미국의
중심지
뉴욕이지.


와~ 여기가 뉴욕이구나. 신기해.
온 김에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인증사진이라도 찍고 갈까?
여기 놀러왔니? 게다가 아직 자유의 여신상은 세워지지도 않았다고.
끙... 완전 옛날이구나.
그래도 기왕 왔으니까 뭔가 구경을 하고 싶은데... 나리야, 안 그래?
미련을 못 버리네.
어?
나리야, 저 아주머니들 좀 봐. 왜 묶여 있는거지?
설마 미국식 기차놀이?


무슨 사연이 있나봐.
따라가 보자.
!
그래.
이건 뭐지?
부인들이 밧줄로 서로를 묶고 있잖아...
안녕하세요 부인.
저희 선거사무실에 무슨 용건이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잔 앤서니입니다. 1820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합법적인 미국 시민으로 태어났고
평생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해 왔지요. 제 자매들과 함께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고 싶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해주세요.
뜨헉!
어떻게 그런...!?


바로미, 유권자 등록이 뭐길래 저렇게 아저씨들이 놀라는 거야?
유권자는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해.
투표를 하려면 선거관리소에서 유권자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확인받고
유권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하지.
투표를 위한 적법한 절차구나.
그런데 어째서 저 아저씨들은 귀신이라도 본 얼굴을 하고 있지?
여성들에게는 투표할 권리가 없다는 걸
모르시나요?
돌아들 가세요.
나를 대표할 사람을 뽑는 일에 어째서 내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야, 정치는 남성들의 영역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헉! 말도 안돼.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은 나라의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아니, 이 아이들은 누군데 갑자기 끼어드는 거람..?
여성은 어려운 일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와 판단력이 없기 때문이지.
여성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식사메뉴나 커튼 색깔을 고르는 것 뿐이야.
이런 왕재수랑 똑같은 사람을 봤나.
그건 잘못된 편견이에요 아저씨.
제 여자친구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걸요. 저보다 더 잘났어요.
어머 똘아…
대신 넌 나보다 훨씬 용감하잖아.
넌 예쁘고 성실한 걸.







Tip

수정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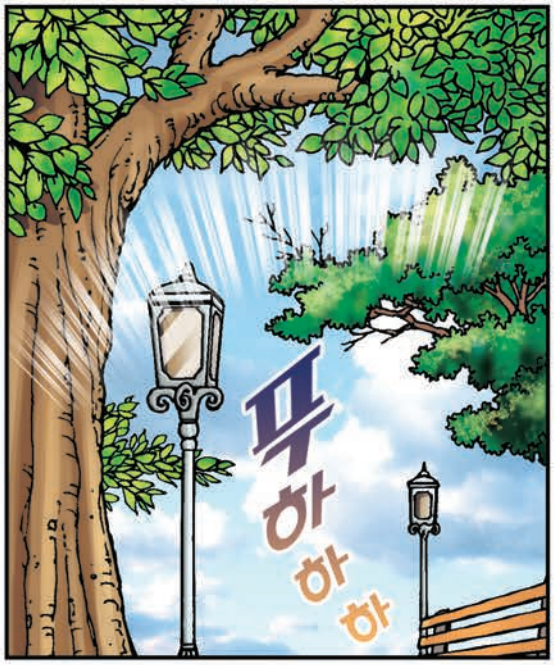
미국은 1787년 헌법회의를 통해 헌법의 전문이 마련되었다.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따로 추가하였는데 이것을 수정헌법이라 한다. 1992년까지 27조의 수정조항이 추가되었다.






자! 말씀해 보세요. 선거관리원 여러분.
여성은 사람이 아닌가요?
!
억지 부리지들 마시고 돌아 가세요.
놓으세요! 우린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겠어요.
이러시면 안됩니다.
끙... 왜 밧줄로 묶었나 했더니 쉽게 물러나지 않으려 단단히 준비한 것이었구나.
좋아요. 당장 유권자 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면
탁
헌법에서 보장한 나의 권리를 당신들이 침해 했다고 고발 하겠어요!!
!!


무
하
하
하


아까 아저씨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거 보셨어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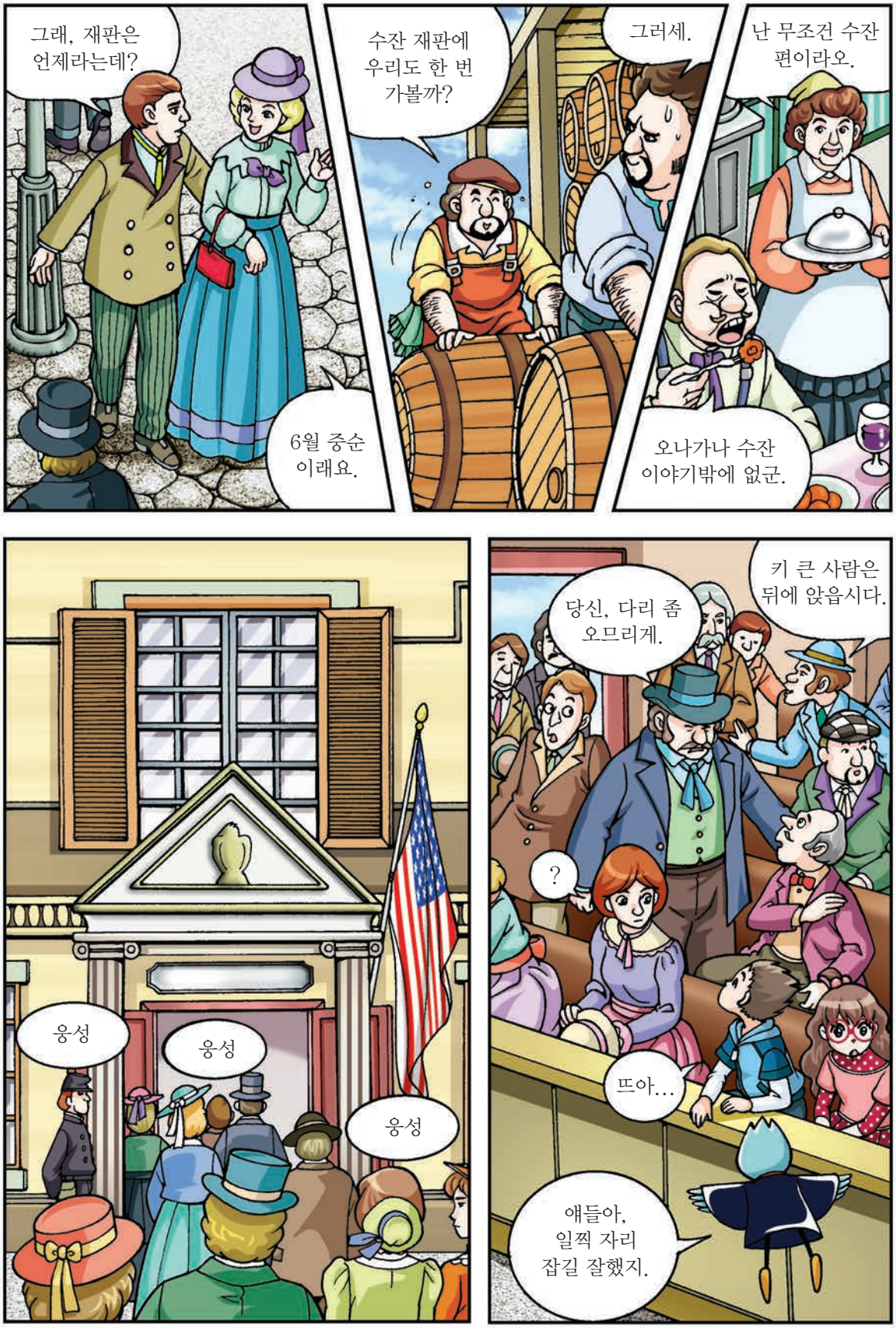

너희가 나서 도와준 덕에 예상보다 쉽게 등록을 할 수 있었어. 고맙구나.


유권자 등록에도 이만한 소동이 있었는데
투표까지 하시면 더욱 시끄러워 질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마다! 그게 바로 내 목적인걸?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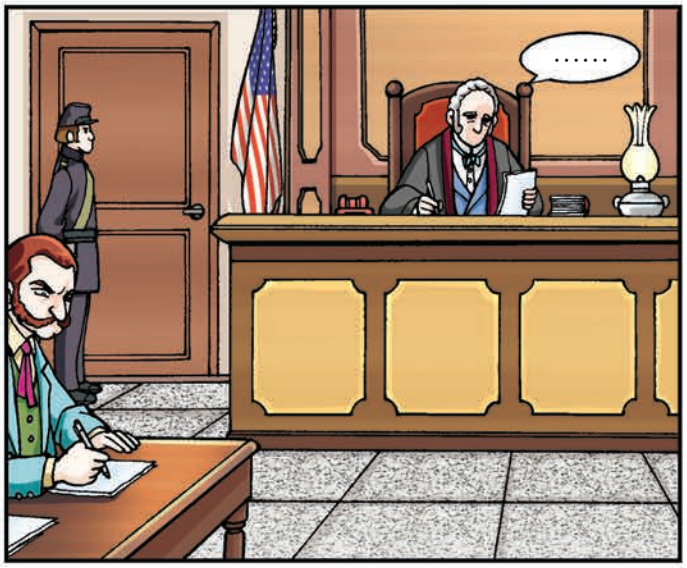

나 한사람이 아니라 모든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나는 미국을 뒤흔들 계획이거든.


수잔 앤서니는 나흘 후 성공리에 투표하였고,
그 투표는 점차 미국 전역에 파문을 일으키며
여성의 참정권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투표함
감히 여자가 투표에 참여 했다고?
말세구먼 말세야.
투표 좀 했다고 고발이라니 너무 하지 않나?
호외요! 호외!! 수잔 앤서니가
불법선거로 고발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하긴!! 당연한 거지
수정헌법으로 노예들이었던 흑인들에게까지 참정권이 보장된 마당에...
여성에게만 참정권을 주지 않은 까닭이 뭘까?
한 마디로 노예보다도 여성이 못하다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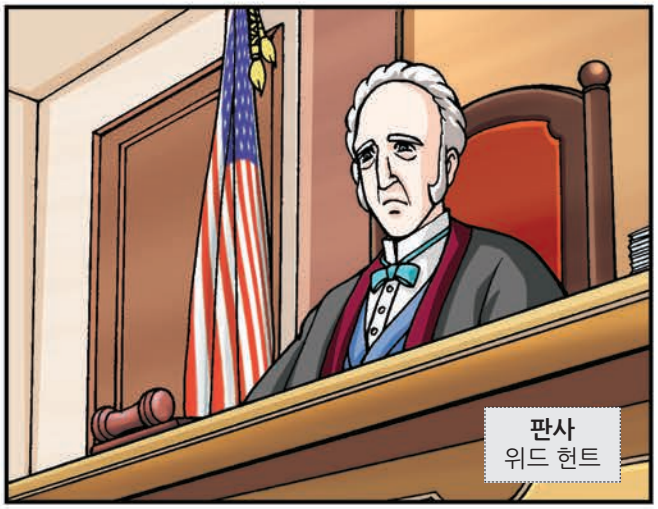

그래, 재판은 언제라는데?
6월 중순이래요.
수잔 재판에 우리도 한 번 가볼까?
그러세.
난 무조건 수잔 편이라오.
오나가나 수잔 이야기밖에 없군.
웅성
웅성
웅성
당신, 다리 좀 오므리게.
키 큰 사람은 뒤에 앉읍시다.
?
뜨아…
얘들아, 일찍 자리 잡길 잘했지.


저기에 있는 신사는 전 대통령인 필모어야.
…!
헐~ 대박!


수잔 아주머니의 생각대로 뜨거운 관심이 모였어.
이제 역사적인 재판이 시작되겠구나.


……


검사
리처드 크로울리


판사
위드 헌트


변호인
헨리 셀던
피고인
수잔 앤서니
오늘 재판의 성공 유무가 곧 여성 참정권의 승패를 가릴 것이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 남성들의 편견을 이겨내 보겠어.
재판장님.
우선 앤서니 씨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잔 앤서니 씨의 증인신문을 요청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재판장님.
여성은 스스로 증언할 능력이 없으므로
신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오늘 재판에서 피고인의
어떤 발언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헉! 이게 무슨 코끼리가 바늘구멍 빠져나가는 소리래?
귀도 입도 멀쩡한데 왜 말할 능력이 없다는 거야? 왜?
얘들아, 진정해. 그러다 쫓겨나.


오늘 이 재판정에서의 차별은 이제껏 수잔이 받아왔던 차별들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야.


무슨 소리야?
미국은 민주주의 나라잖아.


수잔은 어렸을 때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선생님께 교육을 거부당한 적도 있었고
여자애가 수학을 배워서 어디에 써먹겠니? 그냥 집에 가렴.


자라서 선생님이 되었을 때도 차별대우를 받았고
여자들은 남자월급의 1/4 이면 충분하지. 받기 싫음 말고~


훗날 사회운동에 참여했지만, 그 안에서도 차별대우를 받았지.
여자들은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그그


좋은 일을 하려 해도 차별을 받았다니 정말 억울하셨겠구나.
게다가 오늘 재판까지도 억울한 방법으로 진행되니... 정말 불공평해.


수잔의 재판이었지만 수잔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


변호인, 최종변론 하시오.


미국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참정권을 보장받고 있는 것은 국민의 절반인 남성들뿐입니다.


여성들은 법이나 세금을 정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서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요받고 있지요.
이는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배심원단
수잔 앤서니씨는 이제껏 미국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흑인해방운동과 금주운동에 헌신해 왔습니다.
투표도 수잔 앤서니씨의 소신에 의해서 한 행동이었으며
후비적
후비적
수정헌법 13조와 14조가 보장한 권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배심원들의 공정한 평결 부탁드립니다.
수정헌법 13조는 노예제도와 강제적인 다른 사람의 지배나 간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였지.
변호인의 말이 옳았어!
잠깐!!
이 재판은 유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배심원의 평결은 생략하겠습니다.
엥?
수정헌법 13조는 생명, 자유, 재산, 공평한 재판의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을 인정한다.
수정헌법 14조는 여성의 선거권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말도 안 돼.
이건 판사의 독단이야.
그러므로 수잔 앤서니에게 벌금 100달러형을 선고한다.
탕
재판 종료!
변호인의 말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애초에 공정한 재판을 할 생각도 없었던 거야.
무슨 이런 불공정한 재판이 다 있어?
그러게…
……
판사님!!
당신의 판결은 여성에 대한 억압입니다.


저는 판사님의 부당한 판결에
단 1달러도 내지 않겠어요.
헛흠흠!!
휙
바로미 거짓말쟁이!
푸드득
엥? 내가 왜?
?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 재판을 보여 준다고 했잖아.
난 그래서 수잔 아줌마가 재판에서 이길 줄 알고 마음 놓고 있었단 말야.
불시에 뒤통수 맞았어…
에구~ 본의 아니게 오해를 하게 했구나.
수잔은 비록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수잔이 재판의 승리자라고 평가했어.

재판으로 수잔은 미국 헌법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셈이 되어
헌법은 큰 충격을 받았지.

수잔은 평생 여성의 투표권을 위해 노력하다가
1906년 숨을 거둬.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14년 후. 1920년 8월 18일 미국은
19번째 수정헌법의 조항을 승인했지.

수정헌법 제19조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을 이유로
미국 또는 어느 주에 의해서도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와~!!

드디어 우리가
해냈구나.

앤서니 여사가 아니었으면
헌법이 고쳐지지
못했을거야.

맞아.

그래서 수정헌법 19조는
「수잔 앤서니 헌법」이라고도 불려.



Tip

수잔 B 앤서니.(1820~1906)

젊은 시절에는 여학교의 교사활동을 하며 교장까지 하였고 여교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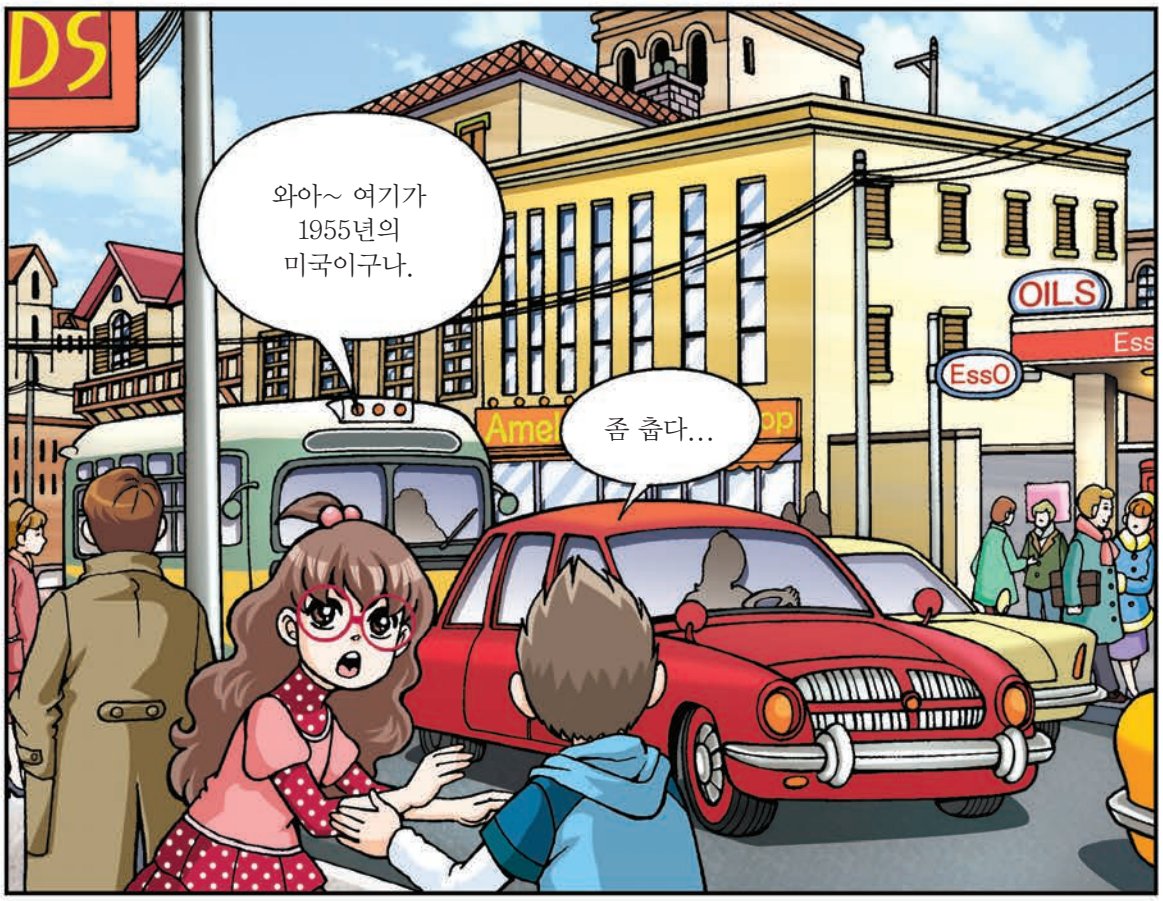
금주운동, 흑인해방운동, 여성인권운동 등 여러 가지 사회운동에 헌신하였고 전국여성선거권협회를 설립하여 회장의 자리에 있었다.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후세의 존경을 받았고 1979년 발행한 1달러 동전에 초상이 새겨지기도 했다.










와아~ 여기가
1955년의
미국이구나.
좀 춥다...
OILS
EssO


크크.. 자동차랑
버스도 다니고~
좀 전보다 훨씬
발전했는걸.


DINING
앗!
식당이다.
OPEN


바로미~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먼저 밥부터 먹자.
이런 배고프니?
마음껏 먹어.
엥?
우리가 초식동물이냐?
이건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우린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래. 계산 좀 해줘.
그럼 나중에 봐~
OPEN
얘들아. 잠깐만!
와~ 여긴 고급식당 같은데…
!


왜.. 다들 우릴 보고 놀란 얼굴이지?
설마 내가 너무 잘 생겨서?
이곳은 백인 전용 식당이다.
썩 꺼지거라`! 노란 꼬마들아!!
예?
백인전용식당?
그런게 어딨어요?
인디언 아이들인가?
설마 병이 있는건 아니겠지?
유색인종 주제에 감히 앞문으로 들어오다니.
저 희한한 옷차림은 또 뭐야?
저 누런 피부좀 보라지.
역겨워서 더이상은 식사를 못하겠군.
드르륵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손님 제가 금방 해결하겠습니다.
어버버...
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아이쿠!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다니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다시 들어가서
항의해야겠어!
얘들아, 이리와
그러면 안 돼.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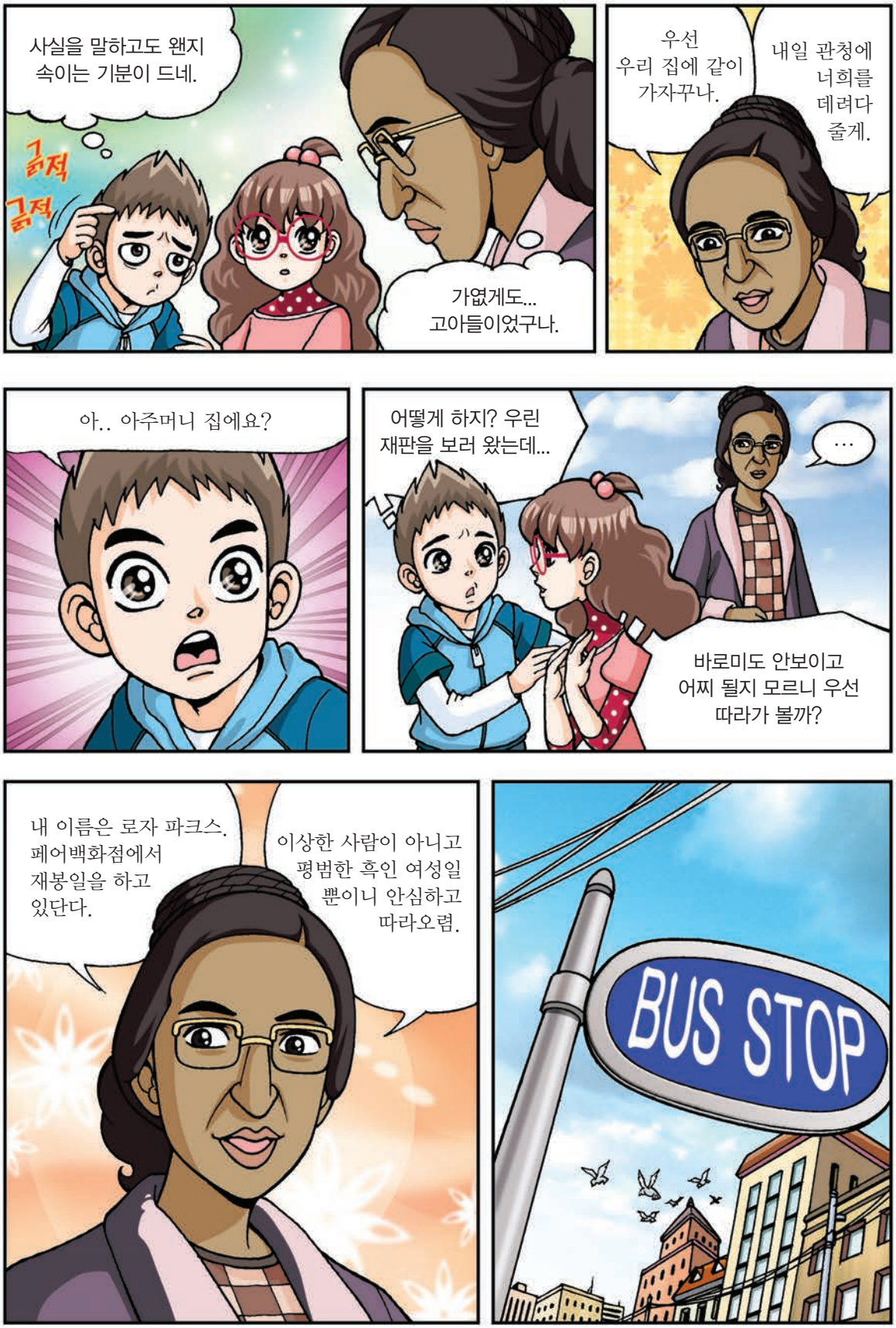

얼마 전 미시시피주에서
한 흑인 소년이 백인 소녀에게
인사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했어.
너희들도 같은 꼴을
당하고 싶니?


헉!!
사.. 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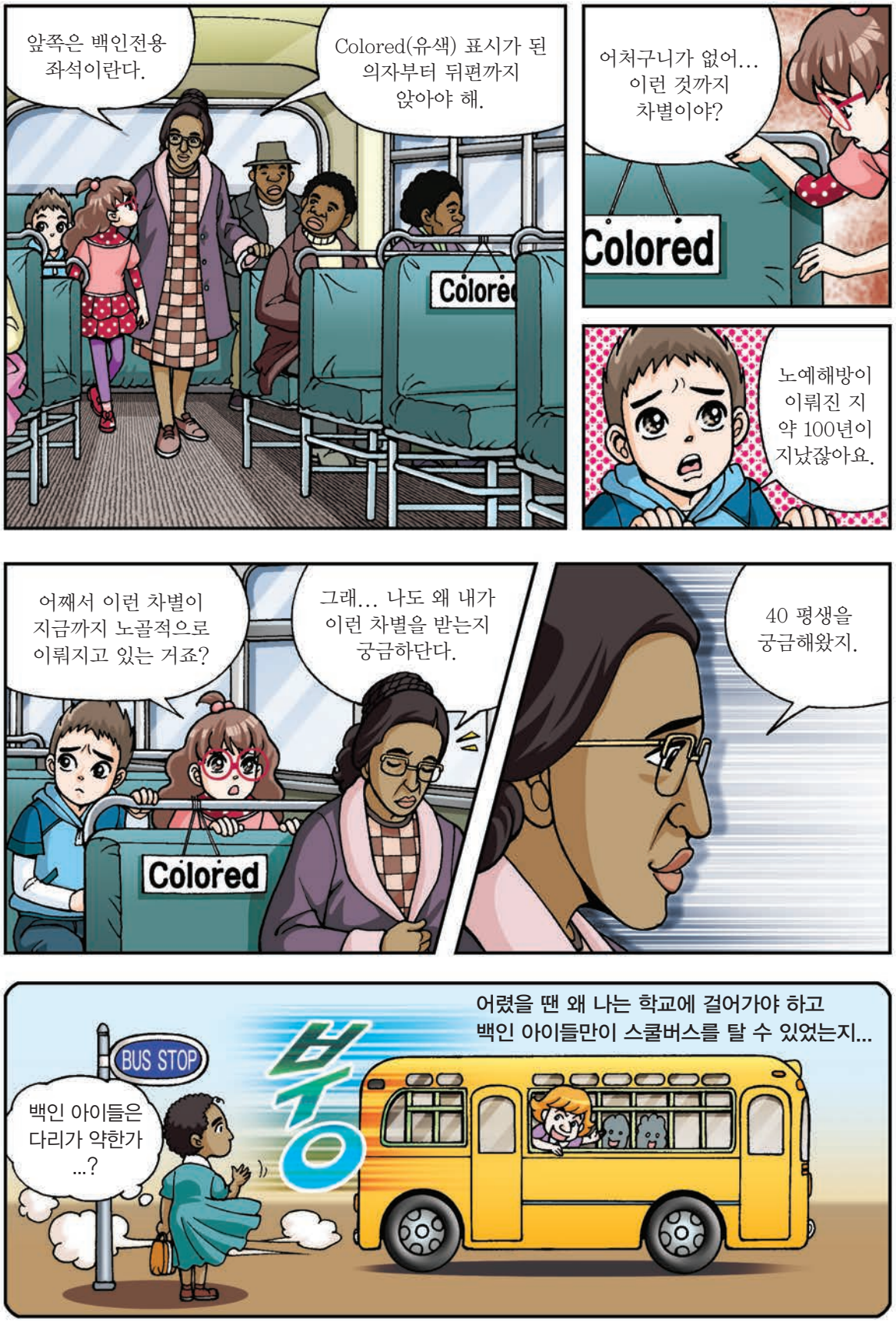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생명의 은인
이시군요.
은인까진 아니고...
어쨌든 앞으로 조심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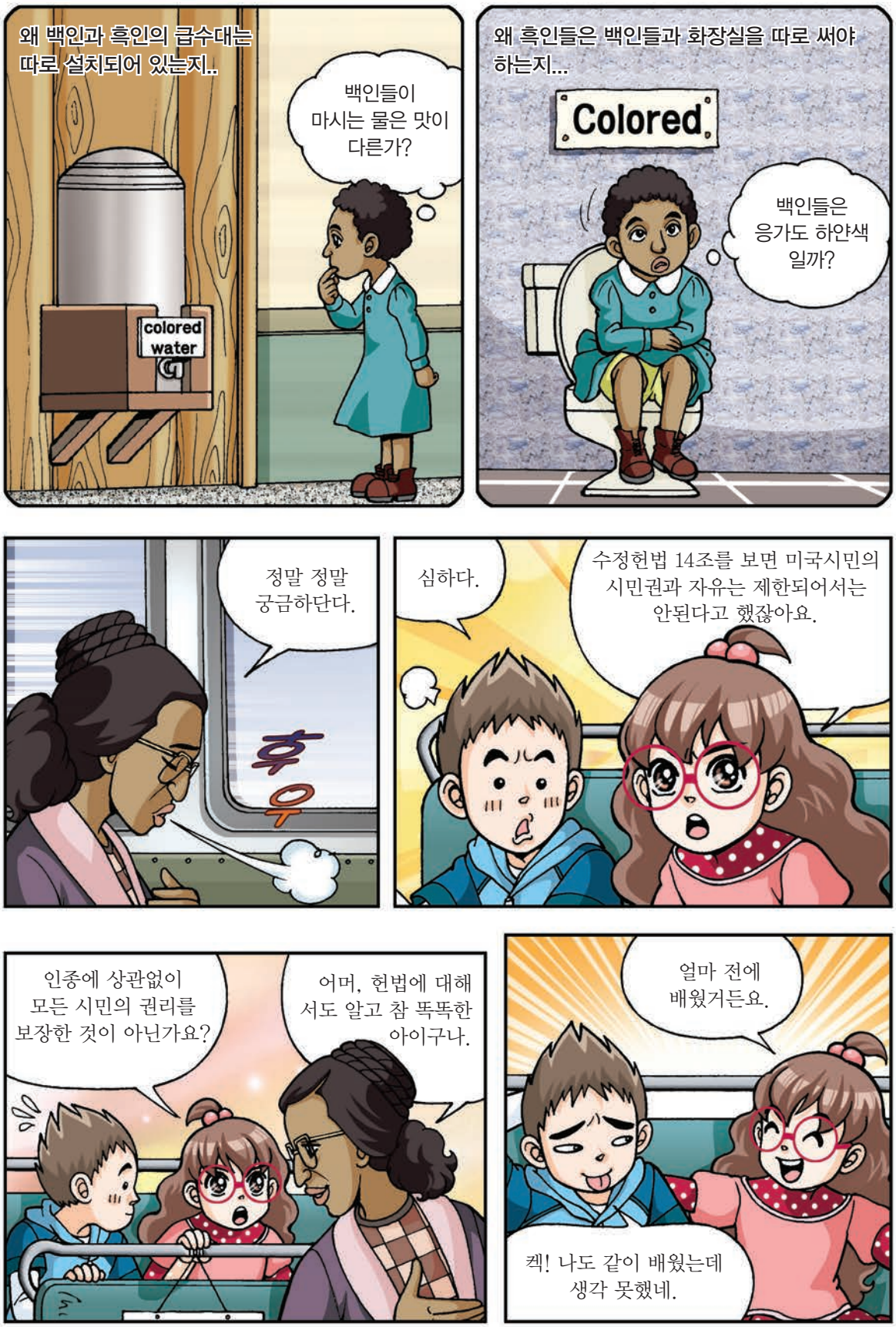

벌써 날이 저물고 있구나.
유색인 아이들이
돌아다니기엔
너무 위험해.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집으로요?


이 세상에는
저희 집이
없어요.
부모님도 다른
세상에 계시죠.


사실을 말하고도 왠지 속이는 기분이 드네.
긁적 긁적
가엾게도... 고아들이었구나.
우선 우리 집에 같이 가자꾸나.
내일 관청에 너희를 데려다 줄게.
아.. 아주머니 집에요?
어떻게 하지? 우린 재판을 보러 왔는데...
…
바로미도 안보이고 어찌 될지 모르니 우선 따라가 볼까?
내 이름은 로자 파크스. 페어백화점에서 재봉일을 하고 있단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흑인 여성일 뿐이니 안심하고 따라오렴.
BUS STOP


BUS STOP
CLEVELAND AVEU
2857
끼이익
어른 1명, 아이 2명이요.
자, 따라오렴.
예?
요금을 내시고 왜 다시 나오세요?
로자 아주머니 버스 안 타세요?
유색인은 버스나 식당의 앞문을 이용할 수 없어. 뒷문으로 타야 해.
가끔 심술궂은 운전사들은 돈만 받고 버스를 출발시키기 때문에 서둘러 타야 해.
헐~
뭐, 이런 밥맛 떨어지는 곳이 다 있어?


앞쪽은 백인전용 좌석이란다.
Colored(유색) 표시가 된 의자부터 뒤편까지 앉아야 해.
Colored
어처구니가 없어... 이런 것까지 차별이야?
Colored
노예해방이 이뤄진 지 약 100년이 지났잖아요.
어째서 이런 차별이 지금까지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거죠?
그래... 나도 왜 내가 이런 차별을 받는지 궁금하단다.
Colored
40 평생을 궁금해왔지.
어렸을 땐 왜 나는 학교에 걸어가야 하고 백인 아이들만이 스쿨버스를 탈 수 있었는지...
BUS STOP
백인 아이들은 다리가 약한가 ...?
버스


왜 백인과 흑인의 급수대는 따로 설치되어 있는지..
백인들이 마시는 물은 맛이 다른가?
colored water
왜 흑인들은 백인들과 화장실을 따로 써야 하는지...
Colored
백인들은 응가도 하얀색일까?
정말 정말 궁금하단다.
후우
심하다.
수정헌법 14조를 보면 미국시민의 시민권과 자유는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했잖아요.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 아닌가요?
어머, 헌법에 대해서도 알고 참 똑똑한 아이구나.
얼마 전에 배웠거든요.
켁! 나도 같이 배웠는데 생각 못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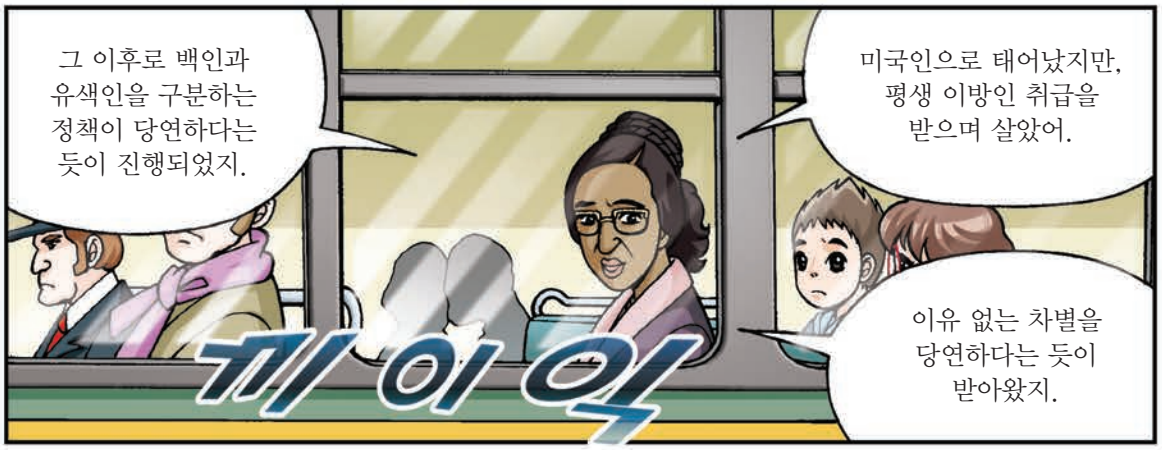


Tip

짐 크로우법
(Jim Crow Law 흑백분리법)

짐 크로우는 원래 흑인연극의 주인공 이름이었으나 점차 흑인들의 분리된 생활을 가르키는 말로 변했다.

흑인 노예해방이 된 후에도 차별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었고 백인들은 1870년대 후반부터 짐 크로우법을 제정하여 학교, 공공장소, 대중교통 등에서 흑인들을 분리한다는 명목으로 차별했다.


그 이후로 백인과 유색인을 구분하는 정책이 당연하다는 듯이 진행되었지.
미국인으로 태어났지만, 평생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살았어.
이유 없는 차별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왔지.
케이익


이런 좌석이 없네.
아이쿠 그래요?


걱정마세요. 금방 자리를 마련해 드리지요.


이제부터 이 줄은 백인전용 좌석이니
뒤로 자리를 옮기시오.
Colored


내 자리를 백인들에게 양보하라고?
하아... 이젠 이런 취급을 받는 것도 지치는구나.
쳇!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보슈!! 당신은 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게요?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뭐라고?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소!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으름장이라 생각하는가 본데 수갑 찬 뒤에 후회나 마쇼.
수갑?


로자 아주머니 갑자기 왜 그러셨어요?
혹시 무슨 대책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 대책은 무슨……
순간 욱하는 마음에
그냥 뻥 터뜨렸어.
그런데 너희에게 미안하구나. 오늘밤 재워주기로 했는데 안될 것 같아.
저희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엇
겨.. 경찰
몽고메리시 조례 6장 11절.
분리에 관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그 일로 로자 파크스는 체포된다.


백인이 서 있는데 감히 흑인이 앉아있으려 하다니.. 쯧쯧
이제 어떡하지?
글쎄?
누가 저 여자에게 거울 좀 빌려줘요. 자기 피부색이 무슨 색인 줄 모르나 봐요.
설마 백인과 흑인이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나?


도대체 이렇게까지 우리 흑인들을
밀어내는 이유가 뭐죠?


나도 모릅니다. 그저 법이 그러니깐 당신을 체포하는 겁니다.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체포하다니.. 정말 충격이야.
백인들은 몽땅 노약자야? 웃겨!!


왜 당연하게 자리를 양보하래?
배가 고프니 더 화가 나네..
꼬르륵


백인들은 자기가 잘나서 백인인 줄 아나봐.
여어~ 아까부터 듣자하니 참 재밌는 대화를 하는구나.


아무래도 주먹으로 너희 주제를 가르쳐줘야 할 듯 싶은데...
크흐흐..
얼마 전 흑인 소년도 별거 아닌 이유로 살해당했어.
똘아. 어서 도망..
때릴 테면 때려봐요!
사람의 인성과 가치는 피부색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어린아이들에게 힘 자랑이나 하려는 형들은 인종을 떠나서 그냥 저질이에요.
뭐라고?
나리야, 난 로자 아줌마를 보고 사실 감동받았어.
불의를 보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본받았어.


돌아! 지금의 경우는 용기가 아니라
주제넘은 행동이야!
이 건방진 꼬마! 한 대 맞고도 멀쩡한가 보자.
컥
빵
어라?
엥?
으아
아
아아
얘들아 괜찮니?
번쩍
미안해, 내가 늦었지?


아냐,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저 백인 형들은 어디로 날려버린거야?
부
앙
흰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새하얀 눈이 많은 알래스카로 보냈어. 아마 만족할거야.
밤이 되니까 더 춥고
배도 고프지.
샤
샹
와우! 모닥불이다.
이야!
과.. 과일이 산더미!!
로자 파크스 아주머니가 궁금하지 않니?
후
루
룩
쿵


궁금해! 어떻게 되었어?
경찰서에 갔다가 곧 풀려나지만.
나흘 후 재판을 받게 돼.
재판 까지!?
로자는원래 NAACP(전미유색인지위 향상협회)의 회원이었지.
재판날짜가 잡히자 동료들과 회의를 하였지.
항의의 표시로
재판 하루 동안 버스를 타지 맙시다.
…
버스를 안 타면 직장까지 꼬박 2시간은 걸어가야 하는데…
그 정도쯤은 걸을 수 있어. 난 3시간 거리라고.
더 이상은 차별을 받으며 버스를 타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고요.


재판 당일,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흑인들이 버스 안타기 운동에 동참했어.
오늘이 무슨 날인가?
왜 검둥이들이 아무도 안 타지?
하지만..
로자 파크스 유죄!!
벌금 10달러와 재판비용 4달러를 지불하시오.
땅
땅
땅
부당한 판결입니다.
항소하겠어요.
그런 부질없는 짓을…
마음대로 하시오.
결코 승복해서는 안된다.
그날 밤 로자는 다시 동료들과 모여 회의를 했지.
재판은 졌지만 버스 안타기 운동은 성공적이었어요.
공정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버스 안타기 운동을 계속 했으면 해요.
좋은 생각입니다.

로자와 동료들은 몽고메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MIA(몽고메리개선협회)를 조직하고 젊고 지혜로운 젊은이를 의장으로 뽑았지.

짝 짝 짝 짝 짝

훗날 흑인인권운동의 아버지가 되는 마틴 루터 킹 목사였어.

권리를 위해 싸울 권리까지 보장받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용기내어 싸웁시다.

버스 안타기 운동은 약 1년간 계속됐어. 그동안 로자와 그녀의 남편은 직장에서 잘리고, 킹 목사의 집에는 폭탄이 떨어졌지.

로자와 동료들은 수시로 살해 협박까지 받았지만 로자는 의지를 꺾지 않았어. 그리고 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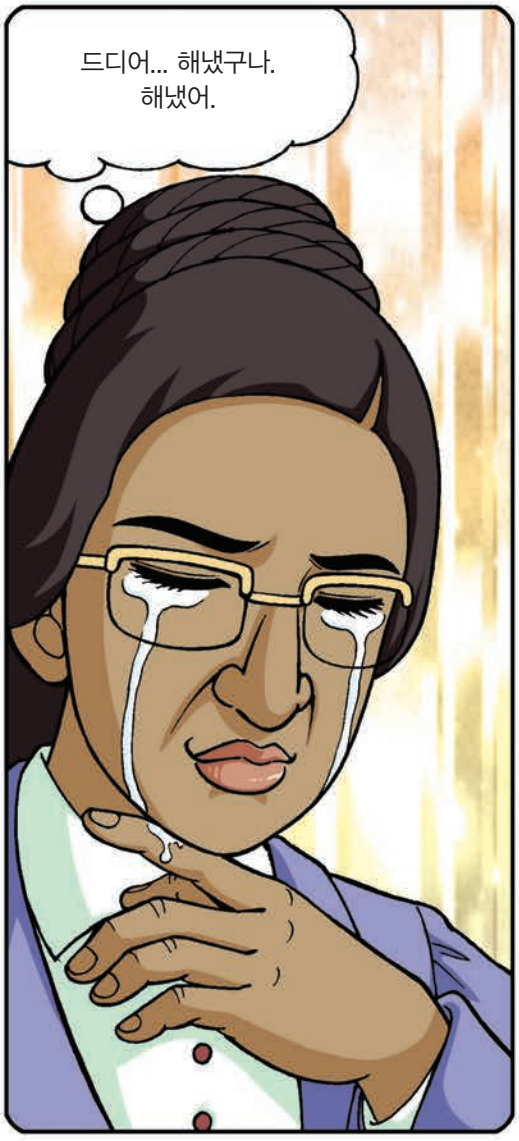
1956년 11월 13일 연방대법원.

땅 땅 땅

버스에서의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여 탑승하도록 한 제도는 시민의 인권을 보장한 수정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로자 파크스는 무죄임을 선고한다.


와
와
와


드디어... 해냈구나.
해냈어.


결국 재판으로 헌법의 가치를 증명하고 잘못된 법을 바꾸었어.
굉장해.


뿐만 아니라 이 재판으로 흑인시민권운동에 불이 붙었고 전국으로 영향을 끼쳤지.





Tip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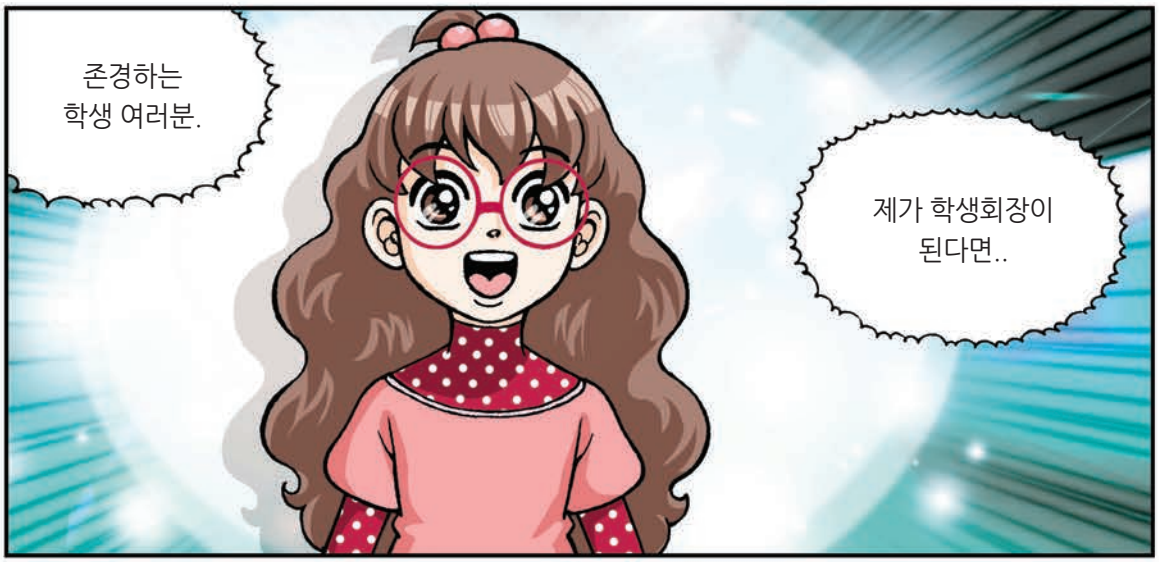



바로미, 어서 우리 시대로 돌아가자.
얼른 돌아가서 선거의 마지막 연설 준비를 해야겠어.
불타는 나리의 투지가 멋진데 ~
샤랑
좋아! 여기부터 정리하고.
우와 감쪽같다.
오~ 바로미는 정말 대단해.
자! 그럼
출발!!
슝
얏호~! 수잔 아주머니와 로자 아주머니처럼
우리도 우리의 싸움에 최선을 다하자!!!


바로미 정말 정말 고마워~
오늘 학생회장 후보자 연설 방송이 있다지?
TV고 뭐고 어제 재수가 사줬던 뷔페 음식들 정말 맛있었지?
난 일부러 응가도 안 쌌어. 그 음식들을 조금이라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웩, 어쩐지 네 방귀 냄새가 독하더라니...
3번!
흣.. 그깟 음식쯤이야. 내가 당선되면 얼마든지 더 사줄 수 있어.
앗! 재수다!!
왕재수!
학생회장 왕재수!!


……
너희들 반드시 나 찍어야 돼! 밥 값은 해야지.
3번
당연하지.
크하하하!! 돈이 좋긴 좋구나.
우리가 미쳤냐. 정말로 널 찍게.
유식아, 걱정마. 왕재수는 절대 널 이길 수 없어.
재들 그냥 적당히 재수의 장단만 맞추고 있는 거라고.
그래, 우린 친구들이 바보가 아니길 바라야지.
내가 걱정하는 건 신나리야.
나리..?
오늘의 후보자 연설방송이 선거를 결정지을 중요한 열쇠가 될 거야.


방 송 실


존경하는
학생 여러분.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학교 내에선
대화의 장을 넓히고
또 다른 학교와의
교류를 원활히 하여
우우~
들어가라!


물러나라 여자!!
KOREA of METROPOLIS
집에 가서 소꿉놀이나 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국적은 인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별이나 인종 등이 우리 사이를 가르고 미워하거나 차별하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그런 편협한 시선은 결국 우리의 성장을 방해할 뿐입니다.
부디 편견 없는 눈으로 저와 후보들을 봐주십시오.
나리...
투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저는 여러분이 결국 옳은 일을 선택할 것을 믿습니다.
와아
신나리 파이팅!!


나리, 너무 멋있다.
역시 내 친구야!
1번 신나리! 신나리!!
벌떡
유식아, 뭐해? 너도 후보잖아.
나 이제부터 나리를 밀거야.
아니, 나리가 반드시 되어야 해.
신나리, 최고!
우리 모두 나리를 지지하자!
후훗~ 학생회장이 결국 결정된거나 마찬가지인걸?
축하해 애들아~
와아
신나리 화이팅



제4화 심화학습

내용 확인 OX 퀴즈를 풀어봐요!

4화 편견과 차별을 극복한 재판이야기 내용에 대한
OX 퀴즈를 풀어 미로에서 탈출해 봅시다.



① 선거 후보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밥을 사는 것은 불법이다. (　　)

② 미국의 헌법은 1787년에 만들어진 후 한 번도 변함이 없다. (　　)

③ 수잔 앤서니 씨는 재판정에서 한 마디도 할 수 없었다. (　　)

④ 미국의 수정헌법 19조는 '수잔 앤서니 헌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

⑤ 흑백분리법(흑인차별)인 짐크로우법의 짐크로우는 원래 흑인 연극의 주인공 이름이었다. (　　)

⑥ 로자 파크스는 1956년 11월 13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는다. (　　)

⑦ 우리나라 헌법 10조는 국민의 인권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바로미와 함께하는



글 |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
그림 | 극동만화연구소

1판 1쇄 발행 | 2014년 2월 10일
개정판 1쇄 | 2024년 10월 ??일

펴낸 곳 | **사법발전재단**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번지 (137-750)
02)3480-1309
대법원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 (사법발전재단)
디자인·인쇄 | 홍디자인 02)464-5167
연구·개발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02)3480-1262

정가 9,000원

ISBN ???
??? (세트)

* 이 책의 내용을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책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어린이마당 법교육교재 코너
(http://www.scourt.go.kr/kids/edu/edubook/index.html)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